

October 2015

월간 가든인 10월

Gardenin

특집
기사

가을에 식재해야 봄에 효과가 더 좋은 '추식구근'

GARDENIN LIFE
10
VOL. 30

Gardenin Maintenance

'미니정원'을 실내 공간에 장식하다
10월 정원관리와 종자수집, 추식구근



Gardenin Plants

관목시대 / 매자나무
클레마티스 육종가를 만나다



Gardenin Culture

영국의 캐럴 매너 칼리지
2015년 Plantarium 박람회
2015 산림문화박람회 / 산청동의보감촌



Gardenin Design

정원으로의 여행
실내정원의 Craft



Gardenin Information

이달의 추천도서 / 한국의 야생화 바로알기



ISSN 2288-1719



9 772288 171000

하
10,000원



syngenta



GardenIn 월간 10월호

CONTENTS

81 한국의 야생화, 나무 / 이동현

"미니 정원"을 실내 공간에 전문 정원디자인으로 장식하다



미니 정원 실제크기 70 x 70cm

실제 정원보다 더 아름답게 소형 미니어치를 이용한 실내정원은 내부의 실내 인테리어에 다양한 정원디자인을 연출할 수 있는 기회와 꿈을 갖게 해준다.



아름다운 정원을 방문하며 갖는 모두의 공통 점은 땅을 준비하고 정원을 꾸미고 싶은 꿈이다. 여러 주변 여건으로 바래만 크고 아파트 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하지만, 이번 네덜란드의 박람회에서 정말로 축소판 정원을 만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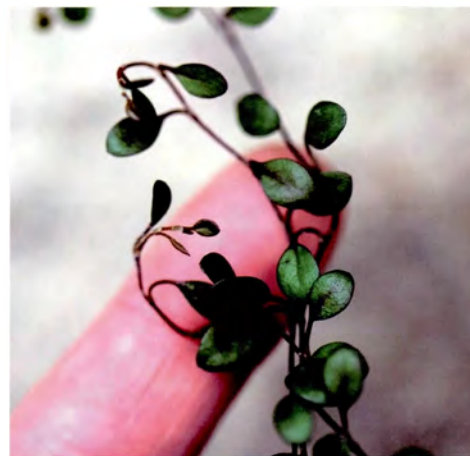


작지만 모두 갖추어진 정원이고 공간의 크기에 관계없이 다양한 정원의 요소와 장식을 모두 갖추 수 있는 재미있는 정원을 소유 할 수 있다.

예전에 '축소지향형의 일본정원'을 읽으며 느꼈던 일들이 이제는 손쉽게 더 작은 축소 정원이 만들어져 가는 시대이다.

2015년 Plantrium 박람회에서 만난 미니정원 / 가든인 편집실

Mini garden plant



Muehlenbeckia axillaris (Creeping)



Fittonia Mini White



Leptinella gruveri



Nephrolepis Mini Russells



Selaginella kraussiana Aur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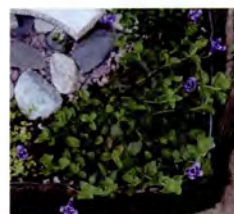
Selaginella kraussiana Aurea



Ficus repens



Evonymus japonica Microphyllus Variegatus



Lindernia grandiflora



Pilea Aqua Marine



yellow green baby tears



Miniature Ivy



Evonymus japonica Microphyllus Variegatus



Ajuga Dixie Chip



Evonymus japonica Microphyllus



Ficus repens Variegatus

10월 정원의 소중한 종자 수집



에키네시아 Echinacea



베버스컴 Vebericum



Gardenin Tip

정원의 유전자원인 종자수집만 잘하여도 정원이 풍부해진다. 그리고 서로 유전자원을 공유하는 정원마니아들의 선물로도 종자를 수집하여 깨끗이 보관함이 올바른 방법이다.

- 종자를 뿌려 꽃이 핀 식물은 거의 종자로 내년 봄 파종하여 꽃을 피울 수 있다.
- 종자를 수집하여 꼭 이름과 색상과 키 높이를 적어두면 정원 식재를 할 때 유용하다
- 종자 보관은 서늘하고 통풍이 잘되는 곳에 말려서 냉장 보관을 요구한다.
- 종자는 종이로 봉투를 만들거나 플라스틱 통, 유리병에 보관
- 건강하고 물기 없이 보관하여야 파종에서 생존율이 높다.



Cornus florida (flowering dogwood)



산딸나무 Cornus florida (Dog wood)



산딸나무 종자의 변화

산딸나무는 봄에 개화기에 흰꽃을 가득 선물하고 가을이 되면 딸기 모양의 붉은 열매를 보여주는 정원수로 인기 높은 관상수이다. 꽃의 색상은 품종에 따라 흰색, 분홍색의 품종도 나오고 있다.

10월의 정원 정리와 추식구근, 추식종자 심기

9월 한 달 동안 따스한 날을 보냈었지만, 10월이 오면 확실히 다른 추위란 것을 느낄 수 있고 1년 중 가장 화려하게 색깔이 변화하는 시기이다. 잔디 위에 바람을 맞고 떨어진 낙엽을 보면 아무 생각 없이 지나칠 수 있지만, 낙엽을 이용해 퇴비를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이 들면, 이런 서리를 준비해야 한다는 생각도 함께 들어야 한다.



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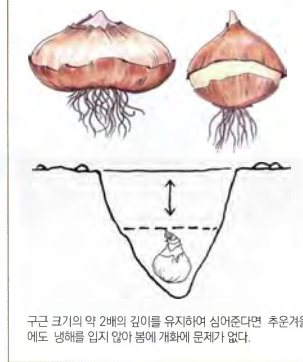
추식 종자 뿌리기와 심기

다년생 식물인 물망초(forget-me-not), 데이지(Bellis), 프리물러(Primula), 제비꽃(Viola), 겨울 팬지(winter pansies) 그리고 봄에 볼 수 있는 지피식물을 화단이나 화분에 심는다. 따뜻한 지방에서는 내한성 이년생 식물을 파종하여 겨울을 나고 내년에 볼 수 있다. 봄에 꽃이 피는 구근을 심거나 새로운 다년생 야생화를 심을 수도 있으며, 심은 후에는 꼭 물을 충분히 공급해 주어야 한다.

정원사의 정원관리 업무리스트

No.	리스트	여름		
		9	10	11
01	관목 & 덩굴정리			
02	가지치기 / 전정작업			
03	퇴비주기			
04	춘·추근 구근 심고 나누기			
05	화단 관리			
06	원예 업무			
07	정원도구 수리·유지 보수			
08	잔디 관리(엇기)			
09	온실 비닐하우스 관리			
12	추수하기			
13	조경 경관 디자인			
14	춘식 추식 씨앗 파종			
15	동절기 정원 관리 준비			
16	물 배기(원조제거)			
17	병충해 관리			
18	식물영양분 토양 검사			
19	식재 선정 작업			
20	식재 심기 작업(춘식추식)			
21	토양 분석 및 관리			
22	관수 공급			
23	총괄 관리 감독(정원관리피드백)			
24	작업전 후 사전정리			
25	파종시기 리스트 작업			
26	월동준비			

건강한 구근고르기



1. 구근을 심은 후 주변에 잊지 말고 라벨링을 해주어야 하며, 가능하면 색과 높이를 표시하여 두면 봄에 식재시 매우 유용한 정보이며 정원의 화단을 보다 아름답게 식재 준비를 할 수 있다.
2. 라벨을 한다는 것은 혹시 구근 심은 것을 잊고 땅을 파거나 다른 식재시 구근을 보호하는 역할도 한다.
3. 정원에 구근 라벨을 거의 하지 않는데 구근은 짧은 기간 꽃을 피우기 때문에 보관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주변 배수관계도 계속 점검해야 한다.
4. 구근을 심은 후 배수관계가 좋은 지 꼭 검토해야 한다. 물이 고여있는 곳은 냉해를 입어 개화가 어려울 수 있다.

교목과 관목

증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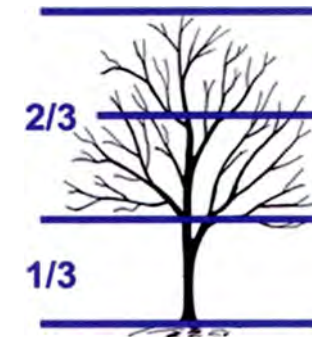
장미(Rosa), 웃나무(Cotinus), 버드나무(Salix), 개나리(Forsythia) 등은 단단한 줄기부분을 삽수로 사용하고, 초가을에 준비 한 부드러운 가지의 삽수를 확인하여 썩은 것은 버리고 남은 것을 화분에 심는다.

나도싸리(Laburnum), 뽕나무(mulberry), 마가목(rowan) 등의 교목과 관목으로부터 얻어낸 열매나 과일 그리고 씨앗이 숙성되면 바로 심는다.

해충과 질병검사

정원을 위생적으로 관리해야 해충과 질병의 피해가 해를 넘어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병든 잎은 절대 퇴비로 사용 하면 안되며 바로 소각을 해야 하며, 장미의 검은 반점, 모과나무의 탈색된 잎, 사과나 배의 붉은 곰팡이 등은 처리를 해야 한다. 버섯류는 늦은 9월이나 이른 10월에 발견 될 수 있으며 피해를 줄 수도 있으며 피해를 안 줄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식물이 건강해 보이면 별 탈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도 되지만, 회색 곰팡이병(grey mould)이나 흰가루 곰팡이병(powdery mildew)은 식물에 피해를 주기 때문에 주의 깊게 관찰을 해야 하며, 관목보다 야생화에 많이 발생하지만 날씨의 영향에 따라서 관목에도 피해를 입힐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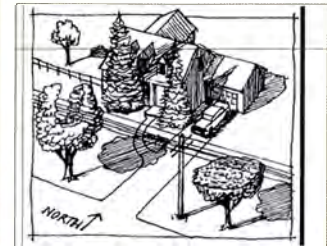
약을 뿌리는 것 보다 직접 손으로 작업을 하는 것이 이 시기에는 효과를 더 볼 수가 있다. 가지치기는 통풍 효과를 줄 수 있으며, 지속적으로 병해를 입은 잎과 꽃과 열매를 따주어야 한다. 가지치기를 통해서 줄기 속이 병해를 입었는지 알 수 있으며, 특히 관목 줄기의 속이 썩거나 구멍이 생겼는지를 확인하고 미리 가지치기를 함으로써 병이 퍼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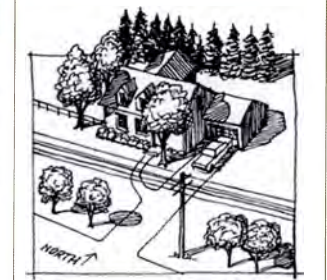
나무 전체성 전체 크기의 1/3 이상을 자르면 성장에 위험을 가져온다.



번식시 습도 조절이 성장에 가장 중요하다



나무의 심어 있는 방향의 점검이 필요한 정원 (x)



정원의 나무 정리가 잘되어 있는 정원 (o)



1. 나무의 목적을 분류한다. 겨울이 긴 우리나라의 경우 상록수를 기본으로 심고 가꾸어야 정원이 사계절 상록을 유지한다
2. 가을이 되면 죽은 잔가지나 죽은 가지를 바로 잘라주어야 뿌리가 건강히 자랄 수 있다.
3. 나무를 옮기거나 자른후 꽃 영양분을 충분히 주며 가을에는 그림처럼 두둑히 멀칭을 해주면 겨울내내 영양공급이 좋아 봄에 건강한 모습을 볼 수 있다.

정원사의 일기 (Gardener's Diary)

가드너 김시용

전 천리보수목원 근무

영국 The Sir Harold Hillier Garden 연수

영국 RHS Garden, Wisley Diploma in Practical Horticulture Programme 졸업

가을맞이 텃밭정원의 시작은 "씨앗"에서



종자 보관 & 라벨 적기

1. 씨앗에 대한 기억

씨앗에 대한 기억은 우리가 인지를 못하는 시기부터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이 씨앗에 대한 기억은 한반도에 사는 우리 모두에게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민족은 주식으로 쌀, 보리, 콩류를 먹고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쌀, 보리, 콩류는 모두 식물체의 기관 중에서 씨앗입니다. 이 씨앗을 통해 식물종은 번식하고 세력을 넓혀려고 애를 씁니다. 특히 우리가 식량으로 삼는 식물종은 우성인자들이 남기 마련입니다. 여기에는 육종가의 역할이 있습니다. 최고의 육종가는 할머니들입니다. 즉 우리의 할머니들에 계속해서 세밀하게 모양이 좋은 것 큰 것을 선발육종합니다. 기억속의 할머니는 수확한 작물을 기질하고 상위에 놓고 씨앗고르기 등을 하는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이렇게 할머니에 의해서 선발된 씨앗들은 다음 해에 밭에 다시 뿌려집니다. 시골에는 여전히 이 할머니들에 계시지만 그 중요함을 많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젊은 농부들은 할머니를 알지 못하고 씨앗은 씨앗파는 곳(종자회사, 농약회사)에서 구입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거나 인식하지 못해도 주변에 있는 할머니들

은 너무나 소중한 분들이란걸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다행히 지역 곳곳에서 할머니의 씨앗을 지키려는 노력이 있습니다. 제가 사는 곳만 해도 씨앗도서관이 미약하지만 할머니의 역할을 대신하려고 애를 쓰는 중입니다. 이외에도 소중한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맑은 공기, 깨끗한 물, 안전한 먹거리와 같은 것입니다.

2. 자기채종

자기채종은 말 그대로 '내가 씨앗을 받는다'는 뜻이다. 식물은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싹이 나오고 뿌리내리면 자라서 꽃이 피면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열매는 바로 씨앗(복숭아, 사과, 자두 등)이 되기도 하고, 열매 안에 씨앗(옥수수, 오이, 수박 등)이 들어 있기도 합니다. 식물 하나가 맺는 씨앗의 개수 또한 다양합니다.

하지만 요즘 작물은 특히 채소의 경우는 씨앗을 받아 뿌리면 씨앗을 받았던 채소와 전혀 다른 모양의 채소가 자라는걸 볼 수 있습니다. F1 씨앗(종자회사에서 우수한 종자 끼리 교배해서 만들어낸 종자)로 그 우수한 형질이 유전되지 않기 때문에 해마다 새로운 씨앗을 구입해야 한다.) 육종이 진행되면서 씨앗은 종묘 회사로부터 구

입하는 것이라는 의식이 정착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재배 기술은 단순화되고, 농가의 공부에 대한 의지도 점점 낮아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채종 기술은 농가 기술이 아니라 기업 기술이 되어버렸습니다.



종자 보관은 밀폐된 용기와 라벨을 꼭 적어 보관

씨앗을 받겠다고 마음을 먹고 나면, 가장 먼저 고민이 되는 것은 '어떤 씨앗을 받을 것인가'라는 점입니다. 집에서 그렇고 밖에서 음식을 먹을 때도 그렇고 먹는 음식에 대한 '세계화'가 점차 확대되면서, 다양한 식재료들이 식탁을 장식하게 되었습니다. 어려서 부모님이 산과 들에서 캐서 밥상에 올려주던 냉이나 쑥은 이미 별미가 되었고 머위나 도라지, 더덕 등은 보양식이 되어서 흔하게 먹는 음식과는 거리가 멀어진 지 오래입니다. 요즘은 무엇이든 밭에서 키우고 야생에서 캐거나 뜯어 먹기보다는 마트에 가서 돈을 주고 사서 쉽게 요리를 합니다. 봄에나 먹을 수 있던 각종 봄나물들이 사계절 내내 재배되어 시장에 나오고, 양념 역시 간장이나 된장에서 벗어나 외국산 기름이나 향신료 등이 다양하게 이용됩니다. 그러다 보니 각 지역에서 재배되어온 특산물도 점점 사라지고, 계절 음식에 대한 개념도 사라져 가고 있는 듯합니다.

지역 먹거리는 지역의 환경을 지킵니다. 어떤 씨앗을 받을 것인가를 고민할 때는 내가 좋아하는 채소나 과일을 우선할 수도 있겠지만, 먼저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기후나 물, 공기, 흙에 대해 알아본 후, 지역에 맞는 품종을 찾아내는 일이 중요합니다. 지역의 땅과 기후에 맞는 씨앗이 심었을 때 가장 잘 자라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지역적 씨앗을 심는 일은 지역의 자연 환경을 지키는 큰 힘이 됩니다.

3. 텃밭정원의 시작

텃밭정원의 시작은 씨앗에서 시작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씨앗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땅도 없으면 할 수 없지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 소중한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씨앗에 대해 생각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식량자급률은 쌀을 포함했을 때는 25~29%까지 쌀을 제외한 식량자급률은 전문가들은 5%라고 이야기 합니다. 그리고

농민의 수는 전 국민의 3~5%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생명의 먹거리가 확보되지 않았고 안전하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먹거리가 확보되지 않은 식량자급률을 보면 알 수 있지만 안전하지 않다는 말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저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우리가 먹는 먹거리는 이미 '세계화'가 되었고, 먹거리가 오는 데 걸리는 시간과 신선도를 유지하는 방법을 상식수준에서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방법이 있어야 되고 그것은 썩지 않게 하는 보존제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이때 사용되는 보존제가 건강에 유해하다는 것은 명약관화(明약觀火)한 일입니다. 농산물을 수입 수출하는 항구에 가면 방독면 같은 것을 쓰고 일을 한다고 합니다. 농산물의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농약을 너무 많이 쓰니까, 독한 냄새 때문에 방독면을 쓰는 것이겠지요. 이런 항구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건강검사를 해보면 무엇인가 공통적인 질병이 나올 거라는 예상은 누구라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치 핵발전소 옆에 사는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공통적인 질병, 고압송전탑 아래에서 사는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공통적인 질병 등등처럼 말입니다. 게다가 여기에는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거리를 이동할 때 쓰는 화석연료입니다. 화석연료의 사용 후에는 이산화탄소(CO2)가 발생됩니다. 이산화탄소는 대기오염의 주범이고 더욱이 지구온난화의 주범입니다. 노하우(Know how)도 중요하지만 노웨어(Know where)도 역시 중요합니다. 특히 먹거리의 문제에 있어서는 어디에서 왔는지(Know where to produce food) 어떻게 생산되는지(Know how to produce food)가 우리 삶과 다음 세대의 삶을 지속가능하게 할 것인지 지속불가능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이 많은 문제들 저는 식량과 환경적문제에 대해서만 잠깐 이야기 했지만,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인 문제들을 만들어 낸 산업화, 근대화, 현대화를 올바로 직시한다면 올바른 대안을 찾을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농업에서는 단작에서 다품목 소량생산으로, 생산성을 높이는 목표를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목표를 지향하는 쪽으로, 대농에서 소농으로, 시장을 세분화하는 것에서 지역화로, 고에너지 투입에서 적정 또는 저투입 에너지로, 가공식품 패스트푸드를 지양하고 슬로푸드 로컬푸드를 지향하는 것이 올바른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인터넷을 통해 보면 세계의 여러 나라에서 이러한 움직임들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먹거리 개혁을 통해 건강, 환경, 지역사회를 지키려는 운동이 아주 많이 일어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가고 같이 가면 느릴 수밖에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와 다음세대를 위해 다함께 빨리 가야할 때입니다. 안전하고 공정한 먹거리를 선택해야하고 이런 먹거리를 생산하는 농부를 지켜야 될 때입니다.

4. 후두둑 떨어지는 씨앗

후두둑 떨어지는 씨앗에는 양파, 대파, 쪽파, 부추 등이 있습니다. 모두 백합과(Liliaceae)의 부추속(Allium) 식물에 해당합니다. 씨앗이 여물기 시작하면 씨앗을 싸고 있던 얇은 씨앗주머니가 터지면서 살짝만 두드려도 씨앗이 후두둑 떨어집니다. 씨앗이 쉽게 떨어지는 만큼 자주 자주 씨앗을 따줘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대파는 먼저 핀 꽃에서부터 씨앗이 여물기 때문에 익는 대로 수확하면 됩니다. 씨앗이 여물면 까맣고 납작한 씨앗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한 송이에서 씨앗주머니가 10~20% 벌어지면 수확적입니다. 나중에 손으로 잡고 털기 좋도록 꽃자루를 조금 길게 남기고 가위로 잘라내면 됩니다.

1. 꽃자루를 들고 털면 씨앗이 후두둑 떨어질 때까지 말합니다.
2. 잘 마른 것부터 씨앗을 털어냅니다.
3. 잘 털어지지 않으면 양손으로 비비면서 털어 냅니다.
4. 체로 치면서 입으로 후후 불어 껍질을 날려 씨앗만 골라냅니다.

양 파

과명: 백합과(Liliaceae) 학명: Allium cepa L.

원산지: 중앙아시아 지중해 연안으로 추정 씨앗생명력: 2년

>> 먹기위한 재배

파종	모기르기	정식	재배	수확
9월 초-중순	10월 말까지	11월초	5월까지	6월초

>> 채종을 위한 재배

수확	건조	식재	개화	채종	갈무리
6월초	10월 초까지	10월중순	이듬해 6월	7월 중순	7월 말



>> 재배

양파처럼 다양한 요리에 쓰임새가 많은 채소도 드물 것입니다. 1년 내내 식탁에 오르는 양파는 단맛을 내기 때문에 조미료가 없을 때도 큰 역할을 합니다.

양파를 먹기 위해서는 수확하기 전부터 씨를 뿌리고 관리를 해야 합니다. 가을이 되면 씨를 뿌리고 늦가을에 본밭에 정식을 해 놓으면 겨울 동안 차가운 공기를 받아 튼튼해집니다. 양파는 봄이 오면 자라는 속도가 눈에 보일 정도로 빠르는데, 잎줄기가 하나들 꺾이기 시작하는 6월이 되면 수확 준비를 합니다.



>> 채종

양파는 씨앗을 뿌려 채종하기까지 만 2년, 햇수로로는 3년이 걸립니다. 장마가 오기 전인 6월 중순경에 양파를 수확하고 나면 2개월 정도 휴면 기간을 거쳐 10월경에 싹이 나기 시작합니다. 싹이 조금씩 올라온 양파를 노지 밭이나 비닐하우스 안에 심고 벚짚으로 보온을 해줍니다. 이듬해 6월 초에 꽃이 피고, 6월 중순에 씨앗을 갈무리하기 때문에 장마 피해를 막으려면 유리 온실 또는 비닐 하우스에 심는 것이 더 좋습니다. 추운 지방에서는 9월 말, 중부와 남부 지방에서는 10월 말이나 11월 초에 심으면 어느 정도 땅에 뿌리를 내린 후에 겨울을 맞이하기 때문에 추위 피해를 많이 받지는 않습니다.



채종용 양파(모구)를 얻기 위한 일반적인 재배에서는 9월 10일경에 씨앗을 뿌리고, 줄기의 밑둥이 연필 굵기 정도인 것을 11월 초에 본밭에 정식합니다. 이보다 굵으면 겨울 동안의 저온에 감지해서 그대로 꽃대가 올라오지 않고 구가 충분히 커진 후 잎과 줄기가 쓰러집니다. 이 때가 모구의 수확기입니다. 정상적인 모구 즉 먹기에 딱 좋은 양파를 20~30개 정도 골라 양파망에 담은 후,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보관했다가 10월 중순에 온실 안에 정식합니다.

양파는 겨울의 저온을 거쳐야 꽃이 핀다. 꽃은 흰색이며 대파꽃과 닮았습니다. 벌과 나비 등에 의해 꽃가루가 옮겨지기 때문에, 다른 품종 간의 거리는 500미터 이상 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는 비닐하우스에 심고 벌과 나비가 들어오지 않게 행랑사를 씌워 주고 안에는 벌(수분매개체)을 두어야 합니다.

꽃이 지고 난 후 씨앗이 여물기 시작합니다. 씨앗주머니가 10~20% 열렸을 때가 수확 적기입니다. 검게 익은 씨앗이 보이기 시작하면 꽃대를 길게 남긴 상태에서 자르고 후숙되기를 기다리면 됩니다. 바람이 잘 통하도록 광주리 등에 종이를 깔고 널어 두고, 잘 마르면 툭툭 두드리기만 해도 씨앗이 우수수 떨어집니다. 키나 체 등을 이용해서 껍질을 날리고 깨끗하게 씨앗을 골라낸 후 저장합니다. 양파는 단명종자로 수명은 1년, 건조제를 사용할 경우는 2년 정도 생명력을 갖습니다.



>> 채종

대파씨를 채종하기 위해 걸리는 시간은 2년입니다. 3~4월에 씨를 뿌리고, 5월에 모종을 본밭에 아주 심기를 하면 김장철인 11월 말에는 두껍고 튼튼한 대파를 수확할 수 있습니다. 씨앗을 받기 위해서는 그중 몇 포기만 남겨 두고 겨울을 나게 합니다. 겨울을 나고 이른 봄이 되면 꽃대가 올라와 회고 둥근 공 모양의 꽃이 피고, 한 포기에서 얻는 씨앗은 1천 개 내외가 됩니다.

간혹 8월에 씨를 뿌려서 10월에 본밭에 심어 겨울을 나는 경우도 있지만, 씨앗을 채종하기에는 너무 어리기 때문에, 이듬해 봄에 꽃대가 약하고 가늘게 올라옵니다. 하지만 노지가 아닌 비닐하우스에 심을 경우, 좀 늦기는 하지만 씨앗을 얻을 수 있습니다.

대 파

과명:백합과(Liliaceae) 학명: Allium fistulosum L.

원산지: 중국 서부 씨앗생명력: 2년

>> 채종을 위한 재배

수확	건조	식재	개화	채종	갈무리
3월 말	4월 말-5월 초	5월	이듬해 4월 말	6월 초	7월

>> 재배

채소 작물 중에서 가장 많이 먹으면서도 가장 키우기 어려운 채소가 대파 아닐까 합니다. 우리나라의 여름장마에 특히 피해를 많이 보는데, 장맛비를 피해 비닐하우스 재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른 봄에 씨를 뿌리던 가을에는 튼실한 파를 수확할 수 있는데 자람이 더딘 편입니다. 좀더 건강하고 파릇파릇한 대파를 얻기 위해서는 물 빠짐이 좋은 토양을 고르고 시금치나 오이 등의 채소와 같이 심어 함께 도우면서 자랄 수 있게 해줍니다. 다양한 채소들과의 섞어짓기를 통해 토양 내의 환경을 풍성하게 만들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3월 말부터 4월 초에 파종상에 씨앗을 뿌리고, 육묘 밭에 이식하고, 손가락 두께 정도로 자라는 8월에 밭에 정식합니다. 묘목의 아랫부분까지 햇빛이 잘 닿으면 대파 줄기가 눈에 띄게 두꺼워지므로 알개 심도록 합니다. 그리고 가을에 볏을 주어서 연한 백색 부분이 길어지도록 합니다. 11월 후반부터 3월 초순까지 수확이 가능합니다.



가을에 심는

아름다운 튤립은 가을에 심어야 합니다.
기존의 야생화 화단, 꽃잔디 화단, 잔디밭 등 어디든지 식재가 가능한 전천후입니다.
우리꽃은 다양한 튤립을 공급합니다.



튤립 (Tulip)

디자인 및 식재방법에 관한 사항은 전문회사인 우리꽃에게 문의하십시오.
미리 준비해야 우량의 구근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주문하세요!!

일반
NOMAL!

식재시기
10월 중순 ~
11월 말

3월 10일 ~ 20일 사이 개화되어
현장 설치 가능한 구근에
예약 주문받습니다.

식재 깊이



튤립

5cm
10cm
15cm
20cm
25cm



우리꽃영농조합법인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진삼미로 924번길 87
T. 031-634-7990 F. 031-634-7991

마을정원

(Community Garden)연재1

가드너 김시용

전 천리포수목원 근무
영국 The Sir Harold Hillier Garden 연수
영국 RHS Garden, Wisley Diploma in Practical Horticulture 졸업



논배미 간판

논 밭과 교육 그리고 정원이 만나는 마을정원 (논배미)

충북 홍성군 홍동면



도시에 있는 초등학교에 텃논을 만들어 모내기하고 있는 모습(논학교)

우리마을에는 '논배미'라고 하는 단체가 있다. 「논과 밭에서 배우고 뛰어노는 미래를 위한 시간,이란 의미를 가진 논배미는 지역의 아이들과 어른 그리고 도시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논과 밭에서 교육활동을 펼치고 있다. '논학교'와 '밭학교'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는 교육은, 1년 동안 논과 밭에서 이루어지는 농사 일정에 따라 교육과정과 연계 된 수업을 진행한다.

논은 벼가 자라는 공간이기도 하면서, 다양한 생명들이 살아 움직이며, 순환하는 생태계를 만들고 있는 곳이다. 모내기를 하기 위해 논에 물을 대면 미꾸라지가 헤엄치기 시작하고, 물자라나 풍년새우 같은 작은 생물들이 논에서 알을 낳고 벼가 잘 자라도록 논생태계를 풍성하게 해 준다. 논은 그 이외에도 자연환경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논에 물을 가둬서 가뭄이나 홍수를 조절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수질정화와 여름철 고온기에 대기를 냉각시키는 효과가 있다. 또한 지하수 오염을 감소시키며, 토양 유실을 방지하고 대기를 정화시키는 능력이 있다. 기원전 3000년 전부터 이어져 내려 온 농사는 우리들의 주식인 쌀을 생산하는 동시에 지구환경에도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다.

밭 또한 우리가 먹는 채소 대부분을 생산하는 곳으로, 흙을 만지며 그 속에 사는 생물들을 관찰하고, 채소가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식물의 과학적인 지식(예를 들면 식물의 광합성) 등을 현장활동과 연계해서 교육이 가능하다. 또한 내가 키운 채소가 밥상까지 올라오는 과정을 배우며 식생활 교육까지 병행할 수 있다.

논배미에서 하는 이런 논·밭에서의 교육활동은 아이들의 인성교육과도 연계가 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모내기가 끝난 후 논에 사는 생물들을 관찰하기 위해 채로 건져내고 있다(논학교)



텃논에서 모가 자라고 있다(논학교)



벼가 자라나는 과정을 노트에 관찰하고 기록하며 교육과정과 연계한다(논학교)



벼가 무르익은 10월 벼베기와 탈곡으로 논학교가 마무리 된다(논학교)

우리나라는 1960년대부터 시작된 산업화로 인해 농촌 인구가 도시로 몰리게 되면서부터, 일손이 부족하게 된다. 그러면서 농촌에 들어온 것이 농약과 비료를 사용한 화학농업이다. 그로 인해 부족한 일손을 농약과 비료로 대신 하면서 땅은 오염이 되고, 생태계는 파괴 되었으며, 우리들의 식탁은 농약과 비료로 키워진 쌀과 채소로 채워졌다. 그리고 지금은 거기에 더해 GMO종자가 우리의 밥상을 위협하고 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이 우리의 몸과 생각을 지배한다는 말이 있다. 우리의 농촌을 살리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논과 밭에서 흙을 만지며, 생물들을 보살피며 건강한 밥상으로 이어지는 교육이, 지금을 사는 우리들에게는 절실하게 요구되는 시대가 되었다. 그래서 '논배미'는 엄마들이 공부를 통해 만든 단체이기도 하다.



밭학교 농장에서 어린이집 아이들과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밭학교)



논에 사는 생물들을 식물로 표현하는 활동(논학교)



밭에서 자란 채소의 꽃을 관찰하는 시간(밭학교)

논배미는 2009년 2월에는 논배미란 이름으로 설립이 되었으며, 2007년부터 흥동면에 유기농업으로 재배한 논에 사는 생물을 조사하면서 시작이 되었다. 2015년 현재는 충남 홍성군 흥동면 룡당리 마을에 사무실을 두고 있다. 세 명의 실무자가 같이 교육활동을 하면서 논농사와 텃밭정원을 일구며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아이들에게 있어 논과 밭은 교육의 장소이기도 하면서, 논정원이 되기도 하고, 밭 정원이 되기도 한다. 그리고 논과 밭에는 늘 꽃이 함께 자란다. 논에서는 벼와 논에 사는 생물들과 사람이, 밭에서는 채소와 사람이 교육을 통해 커뮤니티 가든을 완성하고 있다.



텃밭에서 수확한 채소들을 가지고 만든 식빵피자(밭학교)



논배미에서 운영하는 밭학교 농장 간판(밭학교)



채소의 꽃을 관찰하면서 그림으로 표현하고 있다(밭학교)



민초들의 삶처럼 수수하면서도 강렬한

패랭이 속 (Genus Dianthus)

패랭이는 우리에게 매우 친숙한 식물이다. 패랭이, 구름패랭이, 솔패랭이, 장백패랭이, 난쟁이 패랭이 등 패랭이 속 식물이 우리 주변엔 흔했다. 그러나 패랭이 속 식물은 성장이 느린 상록성 아관목과 다년생, 일년생, 인기종인 수염패랭이(*D. barbatus*)를 포함한 이년생 식물 등 300여 종의 속으로 유럽, 아시아, 남아프리카의 산악지대와 초지에서 발견이 된다. 화단용과 절화용으로 길러지는 수십 개에서 수천 개의 재배종들은 몇 개의 소단위로 나누어 진다. *Dianthus*의 모든 종과 재배종의 잎은 선형에서 창형까지 있으며, 대부분 끝이 뾰족하고 청록색이나 회 녹색이며 윤이 나는 흰가루가 있다. 고산식물의 잎들은 1.5-5cm 길이로 다양하고 카네이션과 큰 패랭이 꽃은 길이가 13cm까지이다. 카네이션과 패랭이 꽃은 비슷한 습성과 꽃을 갖는다. 둘 다 주로 꽃을 위해 길러지며, 보통 카네이션은 절화용으로 패랭이는 분화용으로 많이 개발 되었다. 여름 동안 풍성하게 꽃이 피며, 자르더라도 오래 지속된다. 꽃은 향기가 있고 단생하거나 적게 혹은 많은 꽃이 취산꽃차례 같은 산형화서나 취산꽃차례의 끝부분에 핀다. 각 꽃은 짧은 통 모양의 밑부분과 5개로 나누어진 꽃잎이 있고(겹인 재배종은 60개까지 있다) 이들은 통니모양이거나 수염이 있다. 전시의 목적으로 카네이션과 패랭이는 색과 꽃의 모양새에 따라 나누어진다. 카네이션과 패랭이꽃은 더 많은 소 그룹으로 나누어지기도 한다. 대한민국의 우리꽃연구회에서 개발된 디안투리 트윈클(*D. 'Dianturi Twinkle'*)은 최근 유럽에서 선풍적 인기를 끌고 있다. 이른 봄부터 가을 서리가 내릴 때까지 계속 꽃을 피우고 향기도 뛰어난 뿐만 아니라 겨울에는 상록으로 유지되는 잎 덕분이다. 모든 내한성을 지닌 *Dianthus*종과 재배종은 배수가 잘 되고, 중성에서 알칼리성토양에 햇빛이 잘 드는 곳을 선호하는 반면, *D. pavonium*, *D. glacialis*, *D. microlepis*는 산성환경을 선호한다. 고산식물은 배수가 바로 되는 높은 화분이나 벽면 등에서 잘 자란다. 일년생과 이년생 패랭이 꽃을 햇빛이 잘 들고 배수가 잘되는 중성에서 산성토양, 잘 발효된 유기물과 양분 균형이 맞는 알갱이로 된 비료로 주며 유기물함량이 높은 토양에 기른다. 어린 카네이션과 패랭이 꽃을 잘 색은 유기물이 풍부한 흙이나 정원에 심고, 봄에 영양분이 균형 잡힌 비료를 준다. 너무 깊게 심지 말고 약간 토양을 볼록하게 해 심는다. 봄에서 여름에는 건조가 심하지 않게 관리하고 물을 적당히 주며 액체 비료를 10일마다 준다. *Dianthus*의 모든 종과 재배종의 통풍을 돕고 지속적인 개화를 유지하기 위해 시든 꽃을 따주는 게 좋다.

종식으로는 고산식물은 종자를 냉상이 된 하우스에 화분이나 모판 파종을 하는데 가을에서 초봄까지 파종을 한다. 일년생 식물의 꽃을 초봄 기온이 13~15°C일 때 파종한다. 이년생 식물의 종자를 원래 자리에 가을 파종을 하거나 초봄 기온이 13°C일 때 뿌려야 당년에 꽃을 피울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우수한 재배품종은 삽목이나 조직배양에 의한 증식이 필수적이다. 해충 및 질병으로 만달패랭이와 진디물이 식물체를 약하게 만들 수 있다. 진디물, 삽주벌레, 응애가 온실에서 카네이션에 해를 줄 수 있다. 녹병은 카네이션과 패랭이 꽃, 수염패랭이의 줄기와 잎에 영향을 준다. 바이러스성 질병과 곰팡이에 의한 시들병은 진디물에 의해 쉽게 옮겨진다.





흰꽃금낭화

복주머니안의 작은 황금덩어리

금낭화 속 (Genus Dicentra)

20개 내외의 일년생, 다년생 종이 포함된 속으로 아시아와 북미의 대부분의 삼림지를 포함한 축축한 서식지 특히 산악지대에 있다. 다년생 종은 지하경이거나 구근 혹은 다육성의 직근이 있을 수 있다. 털이 없고 가끔 은회색인 잎은 양치식물처럼 생겼고, 더 많이 길러져 있다. 매달린, 빨강, 노랑, 분홍, 흰색 혹은 보라색의 심장형의 꽃은 아치를 이루면서 총상꽃차례나 원추꽃차례에 피거나 가끔 홀로 피는 경우도 있다. 몇 종은 삼림지 정원에 적합하며, 가정자리 식물로도 유용하며, 작은 암석 정원이나 고산식물원에 적합하다. 식물체의 모든 부분은 먹었을 경우 약한 복통을 일으키며, 잎에 닿았을 경우 피부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다. 완전한 내한성이 있으나 일찍 새싹을 틔우는 종은 서리에 의해 손상을 입을 수 있다.

재배는 비옥하고 습기를 가지는 부식토가 많은 곳에서 기르고 가끔적이면 중성에서 약간의 알칼리성 토양에 부분적으로 그늘이 저야 한다. 금낭화(*D. spectabilis*)는 태양 아래의 축축한 토양에서도 자랄 수 있다. 외국에서 도입된 초롱금낭화(*D. peregrina*)는 고산성식물로 배수가 확실히 되는 화산성 토양이나 자갈이 들어 있는 모판이나 고산식물원에서 기른다.

증식은 종자가 성숙하자마자 혹은 봄에 냉상이 된 화분에 파종한다. 또는 식물체를 이룬 봄이나 잎이 다 죽은 뒤 분주를 조심스럽게 해준다. *D. spectabilis*의 꺾꽂이한 뿌리를 겨울에 심는다.

해충 및 질병으로는 인달팽이가 피해를 주기도 한다.



초롱금낭화



황금일금낭화



타오르는 덩불로 알려진

백선 속 (Genus Dictamnus)

주로 초지에 나는 다년생으로 몇 개의 지역적 변이를 보이는 한 종의 속으로 중앙, 동유럽의 자생지에서 넓은 삼림지역, 건조한 초지, 돌이 많은 지역과 중앙, 서아시아부터 중국, 한국에 분포한다. 이들은 깃 모양의 서양 물푸레나무처럼 생긴 잎이 있고, 각각은 3-6쌍의 작은 잎과 끝에 붙은 잎으로 되어있다. 길고 뾰족 튀어나온 수술이 있는 5판의 비대칭성의 꽃은 길고 넓은 총상 꽃차례에 핀다. 그리고 성숙하지 않은 열매는 향기가 나고 더운 날씨에는 불이 붙는 가열성 기름이 있다. 때문에 타오르는 덩불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다. 백선은 화단의 가장자리에 적합하다. 이것의 잎, 뿌리 그리고 종자는 섭취 시 가벼운 복통을 일으키며, 잎에 닿을 경우 피부염을 일으킨다. 한방에서는 암치료, 피부병, 두통, 간 기능 강화 등에 쓰이고 있으나 부작용도 심하여 주의 한다.

내한성이 뛰어나 백두산에서 많은 군락을 이룬다. 재배는 건조하고 배수가 잘 되고 적절히 비옥한 모든 토양에서 기르며 빛이 충분하거나 부분적으로 그늘이 진 곳에서 기른다.

증식은 종자가 성숙하자마자 냉상이 된 화분에 파종을 한다. 가을이나 봄에 분주를 한다.



1. 코레우리 하디시리즈

한 폭의 수채화가 펼쳐진다.
노랑, 연노랑, 진노랑, 분홍, 주황의 빛으로 물
들여진 코레우리 하디시리즈가 한 폭의 수채
화를 연출한다. 고급스러운 색상으로 띠죽지
를 가득채운다. 키가 작고 오랫동안 꽃이 피는
장점이 있다. 1품종으로 군식해도 좋고 여러품
종을 구역을 나누거나 아니면 자연스럽게 혼
식해도 잘 어울리는 소재이다.

Special Issue

도심의 띠죽지를 사수하라

‘띠죽지’란 무엇인가. 우리는 아마도 가끔 들어왔거나 대충 어
디를 말하는지 알고는 있다. 다시 정확하게 띠죽지에 대한 의미
를 짚어본다면 가로녹지량을 높이고 아름다운 가로경관 조성
을 위하여 폭이 넓은 보도에 있는 가로수사이에 키작은 나무나
꽃을 심어 만든 공간을 말한다. 좀 더 그 의미를 확대해서 본다
면 도심지를 녹지로 연결해 시민들에게 쾌적한 도시환경을 제
공하여 공간의 질,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데 있다. 그만큼 띠
죽지는 우리의 외부환경중에서도 가까이 존재하는 중요한 공
간이다. 그 공간에 키작은 관목과 꽃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양성
이 필요한 사적인 것 같다. 그런의미에서 이번호에는 단독으로
사용해도 좋고 같이 어울려서 이용해도 좋은 띠죽지용 소재를
소개하고자 한다.

1



2



3

2. 황금취통나무

새로운 취통나무의 탄생

오래전부터 취통나무는 관목중에서도 가로수 소재로서 많이 사용
되어왔다. 생육이 강건하고 위쪽으로 짙게 뻗어자라는 형태로 위
쪽을 알맞은 크기로 전정하던 모습을 종종 거리에서 보아왔다. 황
금취통은 노란색잎을 가진 취통나무로 띠죽지에 열식, 군식하면
그 자체로도 격이 높아진 느낌을 받을 수 있다.

3. 몰리니아

직선의 아름다움에 대한 정답

그라스류중에 키가 큰 종류들이 많이 있다. 이런 종류들 대부분 전
체적인 품과 잎의 질감이 관상포인트 중의 하나이다. 그 중에서 몰
리니아는 직선으로 자라는 품이 일품인 그라스이다. 띠죽지에 적
용한다면 그린색의 정갈함과 직선이 주는 선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4. 매자나무

다양한 색감을 즐겨라.

다양한 품종을 가진 매자나무는 띠죽지용으로 좋은 소재이다. 잎
의 색깔이 적자색부터 그린색, 노란색을 비롯하여 여기에 무늬가
들어가는 품종 등 다양하다. 한품종으로 채워도 되고 서로 다른
색감의 매자나무로 주소재와 부소재를 나누어서 식재해도 좋다.





5



6

5. 붓들레야

이제는 대세로 자리잡은 그 이름

커다란 꽃이 주렁주렁. 한 번 꽃이 지고나면 적당한 크기로 전정해 주면 다시 꽃대가 나와서 여름부터 가을까지 꽃을 볼 수 있다. 전체적으로 풍성하게 피어나는 꽃은 이제는 정원 뿐만 아니라 피복지에서도 강렬하게 자리잡을 수 있는, 아니 비켜갈 수 없는 대세라고 할 수 있을까.

6. 조팝 골든바

노란잎에 하얀색 꽃, 가을은 붉은 단풍

4월이면 노란잎속에서 아름다운 꽃이 하얗게 피어오른다. 꽃이 지고나면 황금색잎은 가을까지 이어지다가 빨갛게 단풍이 들면 또 한번 멋진 경관을 자아낸다. 가정의 생울타리용으로 좋지만 특히 도심의 피복지용으로도 더할나위 없이 좋은 소재이다. 생육이 빠르고 강건하며 배수가 잘 되는 양지와 반음지에서 잘 자란다.

7. 실유카 브라이트에피

반듯한 그 느낌이 좋아라.

위 가장자리에 무늬가 있는 실유카로 형태가 반듯하고 정형적인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다. 군식해도 좋지만 군데군데 포인트로 점식하고 그 사이 키가 작은 식물들로 채워주는 방식으로 연출해도 좋다. 반음지에도 잘 견디나 되도록 양지가 좋다



7



8. 향나무(Juniperus)

기품이 살아 숨신다.

피복지에 겨울 상록이 되면서 관리가 용이한 수종을 추천한다면 향나무 계통이 좋다. 기존에는 소재가 한정되어 블루색의 눈향 계통이 주로 사용되었다. 이제는 시야를 넓혀야 한다. 반직립성의 골드스타향, 블루스타향, 골드키센향, 포복성의 골드카펃향, 직립성의 스카이로켓향, 블루애로우향 등 다양한 종류가 있다. 색감이 뛰어나 이들을 잘 조합해서 사용하면 기품있는 피복지가 연출될 것이다.

9. 억새류

포인트로 제격입니다.

키가 큰 포인트로는 억새가 제격이다. 앞에 무늬가 있는 무늬억새, 호피, 리틀제브라, 잎이 가늘고 늘어지는 형태의 그린라이트, 모닝라이트 등이 있다. 이들은 모두 키가 크고 안정된 품을 가지고 있어 띠죽지에 관목이나 야생화가 심겨진 중간중간 포인트로 적용하면 좋다. 전체적으로 리듬감을 주면서 안정감이 느껴지는 띠죽지로 만들어 줄 것이다.



10. 인동 해오름

덩굴식물이 맞는데 지피식물로도 좋아!

인동 '해오름'은 기존의 인동과는 달리 잎의 색감이 좋아 봄부터 여름까지는 황금색으로 가을에는 단풍이 좋은 인동이다. 또한 장점은 벽면녹화용 뿐만 아니라 일반 땅에 식재해도 옆으로 퍼지면서 녹화가 가능하다. 따라서 띠죽지 등에 지피식물로 이용해도 색감이 좋은 소재로 유용하다.



11. 황금조팝

금빛으로 물들이다.

정갈한 느낌의 황금조팝은 군식하거나 앞라인쪽으로 식재해주면 좋다. 때로는 다른 식물사이사이에 포인트로 적용해도 좋고 삼색조팝, 분홍조팝, 흰꽃조팝 등과 함께 어울려서 심어도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리고 군식을 하게 된다면 조팝사이에 꽃백합을 혼성 식재하면 더욱 아름다운 띠죽지가 연출될 수가 있다.

12. 상록잔디패랭이

눈 앞에 펼쳐진다. 진분홍 카펫!

봄부터 가을까지 아름다운 꽃을 선보이는 상록잔디패랭이는 햇빛이 잘 들어오고 배수가 잘 되는 곳이면 어디든지 잘 어울리는 식물이다. 우리나라가 개발한 품종으로 이미 유럽에서는 다이안투리 '트윈글'이라는 품종으로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다.



가을에 식재해야 봄에 효과가 더 좋은 추식구근

아직 동면에서 잠을 깨지 못한 이른 봄, 어느새 파란 고사리손이 하늘을 향해 손을 내민다. 튤립, 수선화, 무스카리 등등 가을에 심었던 추식구근들이 제일 먼저 봄을 맞이한다. 이제 추식구근은 봄 경관에 빠질 수 없는 주요 소재로 자리를 잡아 가고 있다. 봄에 꽃을 피우지만 가을에 심어야 되는 추식구근 식재의 계절이 돌아온 것이다. 봄의 전령사, 추식구근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고 그 종류와 현장을 따라가 본다.

I. 추식구근(튤립, 수선 등)은 가을에 심는 소재

추식이란 말은 말 그대로 '가을에 심는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추식구근이라함은 가을에 심는 구근을 뜻한다. 우리가 이른 봄 가장 빨리 꽃을 맞이할 수 있는 튤립, 수선, 무스카리, 크로커스 등 많은 화려하고 아름다운 봄꽃 구근을 대부분 추식구근이라 한다. 이들 추식구근은 추위에 매우 강해 그 전 해 10월부터 11월까지 얼음이 얼기전에 식재해주면 이듬해 아름다운 봄꽃을 선물해주는 식물이다. 이는 꽃이 피기전 추위를 겪어야 화아분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겨울추위를 맞지 않으면 꽃이 피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추운 겨울이 있는 우리나라에 아주 알맞은 조경식물종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10년전만 해도 우리나라는 대부분 이른 봄에 꽃시장이나 화원에서 화분에 심겨진 튤립이나 수선 등을 꽃이 핀 상태로 구입하여 화단이나 화분 등에 심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사실 이런 방법은 올바르지 않다. 그 이유는 이른 봄에 화분에 심겨져 꽃을 피운 것은 겨울에 온실에서 재배하여 꽃이 핀 상태로 시장에 출하하게 된 것이다. 온실에서 자란 포트묘를 옮겨 심다보니 몸살과 아울러 화기 자체가 짧아지기 때문이다.

이런점에 감안하여 10여년전부터 국내에서는 '우리넷'(정원과 품종의 가이드 매거진)을 통해서 추식구근을 가을에 현장에 직접 심으면 비용도 저렴하고 한 달이상 관상가치가 지속됨을 널리 홍보하였다. 그 결과로 추식구근이 조경현장에 봄꽃 소재로 적극적으로 직접 적용되었다. 그 이후로 단순히 절화용, 분화용 소재였던



가을에 식재된 튤립(위)과 크로커스(아래)가 이른 봄 순이 나오고 있다

추식구근은 지금에 이르러서는 대표적인 조경소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한 예로 대표적인 추식구근인 튤립은 10년전만해도 대부분 절화, 분화용 소재로 국내에 약 1,000만구 정도 소비가 되었는데 현재 국내에 소비되는 튤립의 양은 약 3,000만구 이상일 정도이다. 절화용, 분화용으로는 줄어가는 추세이고 오히려 조경용으로 2,000만구 이상 가을에 식재되고 있다. 이제는 튤립은 중요한 조경소재의 한 자리를 차지 하고 있다.



아이들과 튤립

또 다른 방법으로는 일년초와 추식구근 혼성식재가 있다. 이는 같은 시기에 다양한 느낌을 연출하기 위해서 구근 아래 하부쪽에 일년초를 식재하는 것이다. 이 방법은 바로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전년도에 미리 식재매트에 혼성식재한 뒤 재배하여 3월 10~20일경 현장에 바로 식재하면 된다.

II. 추식구근의 혼성식재

초기 조경에서의 이용법은 주로 에버랜드, 강원랜드 등의 레저문화단지 또는 지자체 축제현장에 대규모 식재가 일반적 이었다.

또한 기존의 잔디밭에 구멍을 뚫어 식재하고 아름다운 봄 경관을 감상하고 꽃이 지면 본연의 잔디광장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어 개인정원의 잔디밭이나 골프장의 주요 보행로 주변의 잔디밭에 식재해도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었다.



이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여 추식구근이 정원에 적용되었다. 즉, 튤립을 비롯한 추식구근은 이른 봄에 꽃을 피운다. 그렇기 때문에 꽃이 없는 이른 봄의 숙근조정원에 잘 활용하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소재로 각광받을 수 있을 것이라 판단에 야생화와 추식구근의 혼성식재가 도입되었다. 기존 정원의 숙근초 사이사이에 튤립, 수선, 무스카리 등 추식구근을 식재하면 4월 중순(중부 기준)부터 꽃이 피기 시작하여 아직 꽃이 없는 봄 정원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그리고 추식구근이 잘 때쯤 바통을 이어받아 본격적으로 숙근초들이 봄부터 가을까지 연속개화 하게 되는 것이다. 지금은 혼합식재정

III. 추식구근의 식재

• 식재 시기

추식구근은 10월에서 11월경에 심는다. 가을에 심는 튤립 구근을 비롯한 추식구근은 겨울의 저온을 필요로 한다. 가능한 서리가 내리기전에 심는 것이 좋다.



구근에 따른 식재 깊이

• 장소

햇볕이 잘 드는 양지쪽이나 활엽수림 아래 하부식재도 가능하다. 토양은 부드럽고 배수가 잘 되는 사질토양이 좋다. 배수가 잘 되지 않는 곳은 알뿌리가 썩게 되기 쉽다. 보수력과 배수력을 높이기 위해 부엽토, 퇴비, 톱밥 등 자연유기물을 충분히 섞어주면 다음해에 건강하고 아름다운 꽃을 충분히 볼 수 있다.

• 심는 방법

토양의 양분을 더해주기 위해 퇴비나 유기물을 식재전에 섞어 주면 좋다. 구근을 심는 구멍의 깊이는 구근의 크기에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구근 크기의 2~3배 정도의 깊이가 적당하다. 구근의 방향은 알뿌리의 뾰족한 방향이 위를 향하게 심는다. 심는 간격은 일반적으로 구근의 2~3배 폭 또는 10~12cm 정도가 적당하다. 구근 식재 후에는 물을 충분히 주어야 한다.

IV. 사진으로 보는 추식구근 정원



이른 봄 나무아래에서 아슬아슬이 피어오르는 스킨라



다양한 색상의 크로커스 꽃종들이 혼합되어 아름답게 꽃을 피우고 있다.



앞쪽으로는 꽃잔디와 일년초가 혼성식재 되어있고 가운데에 튤립이 군식되어 있는 공공정원(청계광장).



진다밭에 식재된 튤립



여의도 한강공원에 시민들을 위해 식재된 다양한 튤립꽃종



튤립과 비올라가 혼성식재되어 고급스런 경관을 연출하고 있다.



미리 혼성식재로 재배되어진 튤립과 양귀비 식생매트. 튤립이 지고나면 양귀비가 이어서 개화하게 된다(광화문 광장).



추식구근(튤립, 수선화)과 비올라 등 1년초와의 혼성식재가 잘 어우러지는 경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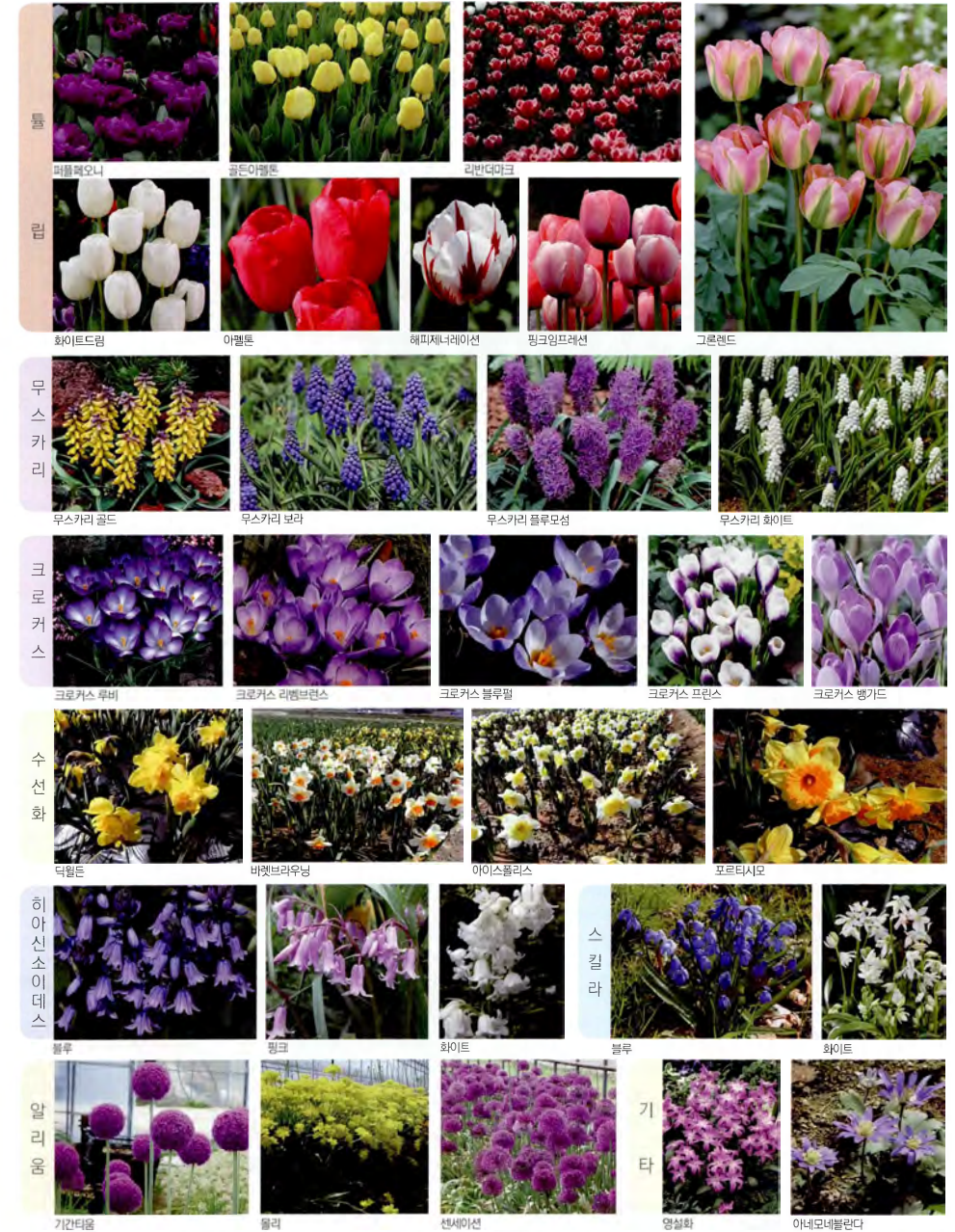


튤립과 데이지의 아름다운 혼성식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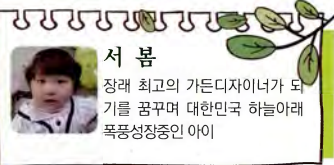


아름답게 펼쳐진 튤립정원

V. 추식구근의 종류



서봄과 함께 떠나는 정원식물 나들이



서봄

장래 최고의 가든디자이너가 되
기를 꿈꾸며 대한민국 하늘아래
폭풍성장중인 아이

천의 색상, 화려한 외출 후룩스



꽃 가운데 눈이 있어서 분홍심이라 불리는 품종입니다



후룩스 품종별로 너무 예쁘네요

누구나 화려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은 똑같을 거예요. 이번에 소개할 후룩스도 화려한면에서는 최상의 위치에 있는 식물입니다. 후룩스는 북미원산의 다년초로 줄기는 곧게 자라고 생육습성이 강해 재배가 쉬운 식물이에요. 우리나라와 같은 여름철바람과 습기에도 강해 오래전부터 우리의 도로조경용으로 최고의 인기가 있었던 식물입니다. 이후에도 새롭게 개발된 많은 후룩스들이 국내에 도입되어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런 새로운 개량후룩스들의 장점을 살펴볼까요.

먼저 꽃의 형태와 꽃색이 다양합니다. 흰색에서부터 완전히 빨강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고요, 꽃의 형태도 불형, 원추형, 마름모형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후룩스가 향이 없거나 약한 것에 비해 향이 매우 좋고 진해서 옆을 지나가기만 해도 향을 느낄 수 있네요. 또한 키는 30cm에서 80cm에 이르는 품종이 있고요, 꽃도 마치 포도송이처럼 풍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존 후룩스에 비해 병충해에 강하답니다. 특히 기존 품종은 여름이 되면 잎에 흰가루병이 쉽게 발생해서 생육이 불량해지고 심하면 꽃이 빨리지면서 관상가치가 떨어지곤 해요. 이에 비하면 개량된 후룩스는 병충해에 강하고 흰가루병에 걸리지 않아 가을까지 싱싱한 꽃을 볼 수 있어요. 꽃은 일반적으로 6월부터 꽃이 피기 시작해서 10월까지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가지 정보를 드릴게요. 약 1달간 꽃이 피고 질때쯤 반드시 커팅을 해주어야 다시 꽃을 볼 수 있어요. 이때 너무 줄기아래쪽을 자르면 다시 꽃을 보는데 너무 오래걸리거나 보



정원에 식재되어 화려함을 뽐내는 다양한 후룩스

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해요. 그렇기 때문에 꽃이 진 꽃대 바로 아래쪽을 커팅해 주어야 바로 3주뒤에 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점 잊지 마세요!

후룩스는 품종이 다양해서 이들과의 혼식으로도 아름다운 경관연출이 가능합니다. 도로는 물론 골프장, 주택정원, 공원, 식물원 등 어디에 적용해도 좋습니다. 물론 화분재배를 해도 매우 아름답습니다.

생육환경을 살펴볼까요. 주로 햇빛이 잘 드는 사질양토를 좋아하고 물빠짐이 좋은 곳에서 생육이 좋습니다. 음지는 되도록 피하는 것이 좋고 추비보다는 퇴비에 의한 밑거름을 잘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번식은 주로 생산농장에서 삽목, 포기 나누기, 뿌리삽으로 진행합니다.

아름답고 새로운 후룩스 품종으로 화려하고 아름다운 정원을 꾸며보세요!

Step by Step

후룩스 순자르기



1차 개화된 꽃이 지고 있는 모습



꽃대 바로 아래쪽을 가위로 잘라준다.



순자르기후 약 2주 뒤에 꽃봉오리가 맺히기 시작한다.



순자르기후 약 3주 뒤에 꽃이 피기 시작한다.



순자르기후 약 한달 뒤에 꽃이 만개한 모습



후룩스의 종류



골드핀



도움왕



레드윈



백설



왜성홍단



카타리나



파라다이스



향심



레드후드



분홍심



오렌지



홍등

관목
시대

정원의 필수선택 매자나무(Berberis)

매자나무는 흔하게 쓰이는 관목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보기 힘든 관목도 아니다. 일반적으로 잎의 색감이 좋은 관목으로 적색, 황금색잎을 대표적으로 떠올린다. 실제로 매자나무는 관목의 좋은 소재로서 잎의 색감이나 나무의 형태 등에 따라서 그 품종이 매우 다양하다. 앞으로 그 활용가치도 높은 관목으로 가든인에서 소개하고자 한다. 아울러 많은 품종이 생산, 공급될 수 있게 되면 구미에 맞게 선택하여 현장에 공급할 수 있으리라 본다.

다양한 품종, 아름다운 색감

매자나무속은 상록성 또는 낙엽성관목으로 세계적으로 약 450여종이 속해있고 우리나라에도 특산식물이 있는 다양한 종을 가지고 있는 관목이다. 산악지대의 암석으로 된 토양을 선호하고 잎의 형태는 선형에서부터 달걀모양 혹은 거꾸로 세운 달걀모양을 이룬다. 매자나무는 잎의 색감이 아름다워 주로 잎을 감상하지만 노란색에서 짙은 오렌지색을 띠는 꽃이 아름답고 꽃이 지고 색이 다양한 열매를 보기위해 재배된다. 전체적인 형태로 구분한다면 옆으로 퍼지며 자라는 형태와 직립성으로 올라가는 형태로 나누어 진다. 또한 둘로 된 정원에 적합한 키가 작은 종과 화단의 독립수로 활용될 정도로 키가 큰 종과 울타리용으로 적합한 종류까지 있다. 재배는 밝은 태양아래 또는 부분적으로 그늘진 곳이 좋고 대체로 배수가 잘 되는 토양에서 기른다. 좋은 열매와 가을철 단풍을 보기위해서는 양지가 유리하다. 일반적으로 전정은 개화후 가장자리를 다듬어 준다. 나무에서 나오는 유



직립성으로 자라는 매자나무 품종

액은 염증을 유발할 수 있고 모든 부분은 먹었을 경우 약한 복통을 일으키기도 한다. 최근에는 잎이 아름다운 품종들이 많이 개발되어 관목중에서도 앞으로 그 활용폭이 넓어질 유망한 수종이다. 품종에 따라서 잎의 색은 기본적으로 그린색, 붉은색, 노란색을 띤다. 요즘 새롭게 나오는 품종들은 잎에 무늬가 있어 더욱 한층 관상가치가 뛰어나다.

띠녹지, 석축매지용, 암석가든, 울타리용으로 좋은 관목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관목은 철쭉과 회양목이 아직도 대세를 이루고 있다. 다양한 습성의 매자나무는 이런 우리나라의 실정을 감안하면 이용성면에서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다. 키가 작은 종들은 석축매지나 암석가든용으로 좋고 키가 크게 자라는 품종들은 띠녹지, 울타리용으로 좋다. 물론 키가 작은 종들도 띠녹지의 앞라인 쪽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잎의 색감이 좋아 한 종류를 군식하는 것도 좋지만 다양한 색감의 매자나무를 같이 어울려서 사용해도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때 여러품종을 일정구간을 나누어서 교차해서 식재해도 좋고 한 품종을 주소재로 하고 색감이 다른 품종을 포인트 식재해도 좋다. 앞으로는 새로운 관목이 국내에 많이 보급되어질 것으로 전망한다. 아직은 관목소재가 제한되어 있지만 점점 더 좋은 소재들이 현장에 진입하고 있다. 아마도 매자나무의 다양한 품종들도 앞으로 우수한 관목소재로 각광받을 날이 머지 않을 것으로 기대해 본다.



노란색 잎이 주위를 밝게 해준다.



석축매지, 암석가든 등 둘라 잘 어울린다.

잎에 무늬가 다양한 새로운 품종들

봄 이 시작되기전 3월10일 개화용
구근혼합매트

- 추식구근과 일년초의 혼성식재
- 다양하고 고급스러운 경관 연출
- 매트형태로 식재가 편리

문의 **우리꽃농조합법인 031.634.7990**

3월10일~20일 사이에 개화되어 현장설치가 가능한 구근매트 예약주문 받습니다.

가든엔씨앗 꽃 양귀비
가을에 파종하세요!!

양귀비는 가을 파종이 적기입니다.

정원용 꽃씨봉투, 대면적용(kg단위)
모두 준비되어 있습니다.

구입문의 **우리꽃연구소 031.634.7990**



우리꽃 연구소

국내 야생화 연구의 중심 / 신품종 및 신기술 개발
네덜란드, 미국, 호주 등 해외 로열티 수출



우리꽃 영농조합법인

묘종(야생화, 일반초화), 종자(야생화, 일반초화, 우리법면 혼합종, 채소), 구근(춘식, 추식)
특수관목 생산 및 판매
새로운 신품종의 국내 로열티 사업



벽화수 주식회사

도시와 자연의 결합, 미래 친환경을 선도하는 조경건설
벽면녹화(벽화수, 타잔), 고급정원(혼합, 혼성식재)
에코홀시스템(생태옹벽, 축대, 생태하천 블록)



가든조아

생활원에 핵심 콘텐츠를 공급하는 원예제품 쇼핑몰
조경가든대학, 가든센터, 정원소재



신품종 연구개발 및 로열티 수출



본사/연구소 :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진상미로 924번길 87 | T.031-634-7990 | F.031-634-7991
가든조아 T. 031-712-7009
벽화수 : 경상남도 함양군 안의면 황마로 61-169 | T.055-962-7991 | F.055-962-7901

우리씨드그룹은 자연과 생태환경의 복원에서
가치를 창조하는 역량 있는 기업입니다.

정원화로 좋은 우리 야생화



늦가을 정취를 물씬 풍기는 꽃 - 꽃향유

가을꽃은 유독 보라색이 많다.

여름부터 피어나는 쑥부쟁이나 개미취 종류를 필두로 금강초롱꽃, 잔대, 큰평의비름, 투구꽃, 배초향, 산박하, 용담 등등의 보라색 꽃이 우리의 산하를 아름답게 수 놓는다.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에서만 누릴 수 있는 가을날의 혜택이다. 그런데 왜 유독 가을에는 보라색 꽃이 많이 피는 걸까? 알려지기로는, 가을은 꽃가루받이의 주요 매개자인 벌의 활동이 나비보다 활발해지는 시기이므로 빨간색에 둔감하고 보라색 계열에 민감한 벌의 눈에 잘 띄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는 것이다.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건 좀 설득력이 떨어지는 이야기다. 앞서 말했듯이 쑥부쟁이, 개미취, 금강초롱꽃, 잔대 같은 꽃들은 가을에 앞서 여름부터 꾸준히 나타나는 데다가 산국이나 감국 같은 노란색 꽃이라든가 구절초 같은 흰색 꽃도 가을에 적잖이 피어난다. 또한 계절이 가을로 바뀐다고 벌에 비해 나비의 활동이 현저히 줄어드는 것은 아니므로 꽃들이 구애해 벌에게만 초점을 맞출 필요가 없다. 가을빛에 들어 있는 자외선이 안토시아닌 색소를 활성화해 꽃의 색과 무늬가 선명하게 나타나는 것이라는 설명이 차라리 더 설득력 있게 들린다.

꽃향유(꿀풀과) *Elsholtzia splendens*

개화: 9~11월

높이: 30~60cm

분포: 전역 산과 들의 풀밭에서 자라는 한해살이풀이다.

- 줄기는 곧게 서고 가지가 갈라지며 네모가 지고 잔털이 있다.
- 잎은 마주나게 달리고 난형 또는 좁은 난형이며 가장자리에 규칙적인 톱니가 있다. 뒷면에 샘점이 있다. 길이는 1~7cm, 폭은 0.8~4cm이다. 만져보면 전체에서 특유의 향기가 묻어나온다.
- 꽃은 9~10월에 줄기와 가지 끝에 달리는 수상꽃차례에 홍자색으로 한쪽 방향을 향해 핀다. 꽃차례의 길이는 2.5~5cm이다. 포엽은 신장형이고 가장자리에 털이 있다. 꽃받침은 5갈래로 갈라진다. 화관은 입술 모양이고 겉면에 털이 있다. 수술은 4개이고 그 중 2개가 길다.
- 열매는 4개의 분과이고 꽃받침에 싸여 있다.



고산지대에서 자라는 꽃향유는 전체적으로 왜소하다(강원도 인제군 대암산)

보라색 가을꽃 중 최근 들어 우리 화단과 정원에 등장하기 시작한 야생화로 꽃향유가 있다. 꽃머리리밥풀, 꽃평의다리, 꽃범의꼬리, 꽃여뀌, 꽃쥐손이처럼 이름 앞에 '꽃' 자가 들어간 식물들은 유사종에 비해 꽃이 크고 화려하다는 공통점이 있다. 꽃향유도 그러해서 '향유'라는 식물에 비해 꽃차례(여러 개의 꽃이 배열되는 전체적인 모양 또는 배열해 달리는 줄기나 가지)가 크고 꽃의 색이 진한 점이 특징이다. 작은 꽃이 모여 세로로 다닥다닥 붙어 달리는 모습이 아름답다. 좋은 향기로 벌과 나비를 동시에 불러 모아 자리다툼을 유발하기도 한다. 꽃은 물론이고 몸 전체에서 향기가 나는 허브식물이라 잎을 비벼보면 박하 비슷한 향기가 손에 묻어난다. 비슷한 식물로 같은 꿀풀과(科) 식물인 배초향이 있다. 배초향은 사방을 향해 꽃이 피는 데 비해 꽃향유는 한쪽을 향해서만 피는 점이 달라 쉽게 구분할 수 있다.

꽃향유는 분포하는 장소의 환경에 따라 형태적 변이가 심하게 나타나는 편이다. 척박한 땅이나 바위지대처럼 양분이 부족한 곳이 라든가 고산지대처럼 출고 바람이 많이 부는 곳에서 자라는 것일 수록 키가 작고 꽃차례의 길이가 짧으며 가지를 적게 치므로 전체적으로 왜소한 경우가 많다. 그래서 새로운 종으로 오인되기도 하거나 자신이 처한 환경에 적응해 사느라 갖춰진 용모라고 보면 된다. 적응력 한한 좋은 편이니 관리하기도 어렵지 않은 편이다. 운이 좋으면 흰색 품종인 '흰꽃향유'를 야생에서 만나는 행운이 따르기도 한다. 흰꽃향유는 완전한 돌연변이이므로 다음 세대까지 그대로 유전된다.



꽃이 흰색인 흰꽃향유는 매우 드물다(강원도 정선군)



향유는 꽃이 불꽃없고 작아서 눈에 잘 띄지 않는다(강북 울릉도 안평진)

유사종 알아보기

꽃향유에 비해 꽃이 매우 작고 색이 연한 것은 '향유'라고 하며 전국의 산야에서 자란다. 비교적 흔하지만 꽃이 두드러지지 않다 보니 우리의 눈에 잘 띄지 않는다. 잎이 매우 가느다란 선 모양인 것은 '가는잎향유'라고 하며 충북과 경북 산지의 바위틈에서 자란다. 제주도에서 자라고 바닥을 기듯이 자라는 것을 '한라꽃향유'라고 하나 최근에는 꽃향유와 같은 것으로 보는 추세다. 제주도 한라산의 고지대에서 자라며 매우 작고 바닥을 덮듯이 자라는 것은 '좀향유'라고 한다. 좀향유는 화단이나 정원의 지피식물로 이용하면 매우 좋다.



가는잎향유는 잎이 매우 가늘며 꽃차례가 짧다(충북 괴산군 이화령)



한라꽃향유는 꽃향유와 같은 것으로 보는 추세다(제주도 제주시)



좀향유는 바닥을 덮듯이 자라므로 지피식물로 개발하면 좋다(제주도 한라산)



꽃향유



변산향유

심기와 관리하기

꽃향유는 화단의 가장자리나 정원의 바위틈에 심어두면 늦가을의 정취를 맛볼 수 있어 좋은 꽃이다. 양지 바른 곳을 좋아하지만, 반그늘에서도 잘 자란다. 토양은 가리지 않는다. 물은 자주 주지 않아도 되나 땅이 말랐으면 한 번에 흠뻑 주는 것이 좋다. 거름은 적게 줘도 되며 가끔씩 덩이 거름이나 고형비료를 주면 된다. 종자는 11월경에 씨를 받아 즉시 뿌리든가 이듬해 4월 전후에 뿌리면 된다. 대개 10일 전후로 씨가 트며 본잎이 여러 장 나오고 줄기가 굳어지면 아주심기를 한다.



글·사진 : 이동혁

혁이삼촌의 풀꽃나무 일기, <http://blog.naver.com/freebowl>

한국의 나무 바로알기, 한국의 야생화 바로알기 저자

정원용 디스플레이 식물

우리꽃 빅사이즈 화분



박람회, 모델하우스, 지역축제 등
행사용으로 안정맞춤
식재후 곧바로 완벽한 정원 조성!

우리꽃 빅사이즈 화분용 상품은 충분히 자란 정원용 식물을 소비자가 직접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상품입니다. 오랫동안 재배하여 큰 포기로 자란 식물로 화분 혹은 기타의 용기 등에 심겨져 이용 후 바로 그 최상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심고 오랜 기간 기다려야 제 모습을 보여주던 정원에서 심고 나면 곧 바로 아름다운 최상의 정원이 가능합니다.



우리꽃영농조합법인 구입문의 031.634.7990

추석 한가위

"조율이시(棗栗梨柿)"의 교훈과

리더가 갖추어야 할 4가지 덕목

조율이시(棗栗梨柿)의 교훈

우리 조상들은 제사를 지낼 때마다 조율이시(棗栗梨柿)의 교훈을 깊게 새기면서 조상님께 예(禮)를 올리고 있다. 동방예의지국에서 보이고 있는 미풍양속의 하나라 생각이 된다. 즉, 대추, 밤, 배, 감을 중요한 과일로 여겨서, 이들을 순서대로 갖추어 놓고 조상님께 제사를 지내는 것이다. 이 각각의 열매에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뜻이 담겨져 있다.

대추(棗)가 주는 교훈

첫째, 대추(棗)가 주는 교훈은 "한번 시작한 일은 반드시 열매를 맺어라."라는 것이다. 대추는 새 신부의 치마폭에 던져주는 열매로 다산을 기원하는 과일이다. 대추가 다산의 상징이 된 이유는 대추나무에 꽃이 피면, 열매를 맺지 않고 지는 꽃이 한 송이도 없기 때문이다. 대추나무는 꽃이 피면 반드시 열매를 맺고 지는 특성이 있다. 그래서 대추는 "시작하면 끝을 맺어라."라는 교훈을 나타내는 과일이다.

밤(栗)이 주는 교훈

둘째, 밤(栗)이 주는 교훈은 "처음의 열정을 기억하고 잊지 마라."는 것이다. 밤나무는 잘 아는 것처럼 그 밤나무가 아무리 오래 되었어도 맨 처음 심었던 밤톨이 처음 심은 그대로 뿌리 끝에 달려 있는 특성이 있다. 수년 전 어느 수목원에서 밤나무를 이식할 때에도 뿌리 끝에 달려 있는 최초의 밤톨이 그대로 붙어 있는 것이 관찰되었다고 한다. 그러므로 밤나무가 수백년이 지나도 첫 씨앗을 그대로 달고 있는 것처럼, "처음을 잊지 마라."는 것이 밤나무가 주는 교훈이다.

배(梨)가 주는 교훈

셋째, 배(梨)가 주는 교훈은 "좋은 가치에 집중하라."는 것이다. 우리가 다 아는 고려시대 이조년



조율나무(꽃)



조율나무(열매)



대추(꽃)



대추(열매)



밤대추(열매)



밤대추(열매접사)



밤나무(수꽃)



밤나무(암꽃)



밤나무(열매군)



밤나무(열매접사)

의 ♠다정가♠ 가운데 "이화에 월백하고 은한이 삼경인제-"라는 말로 시작하는 시조가 있다. 봄이 되면 배꽃이 흐드러지게 피어서 온 가지를 뒤덮고 달빛에 하얗게 빛을 반사하며 아름다움을 뽐낸다. 그런데 만일 농부가, 아름다움에 취해서 꽃을 그대로 놔두면 그해 농사는 모두 망쳐지고 만다. 아무리 꽃이 보기 좋아도 8~12%만 남기고 모두 따내어야 튼실한 배가 열리게 된다. 무슨 뜻일까? 아무리 좋아도 큰 가치에만 집중하고 다른 욕심은 과감히 버려야 튼실한 열매를 맺는다는 교훈이다.



배꽃



배꽃



배꽃



산들배(꽃)



산들배(열매)



감(꽃)



감(열매)

감(柿)이 주는 교훈

넷째, 감(柿)이 주는 교훈은 "배우고 익혀 성장하라."는 것이다. 잘 아는 것처럼, 처음부터 감이 열리는 나무는 없다. 고욤나무에 접을 붙이면 튼실한 감이 열리는 감나무가 된다. 처음 가진 지식만으로 성과를 만들 수는 없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새로운 지식과 학문의 길을 열므로 더 좋은 결실을 맺을 수가 있는 것이다.

리더(leader)의 4가지 덕목

우리 조상들은 옛날부터 조율이시(棗栗梨柿)의 교훈을 중시 여겼고 제사를 지낼 때마다 네 가지 과일을 빼놓지 않고 제사상에 올리면서 예(禮)를 다해 왔다. 리더(leader)는 이 4가지 과일의 덕목을 가슴 속에 깊이 간직하고 조직을 통솔하면 실패가 없을 것이다. 즉, 한번 시작한 일은 반드시 끝을 맺어야 하고, 처음의 열정을 기억하고 끝까지 잊지 말아야 하며, 아무리 좋아도 큰 가치에만 집중하고 다른 욕심은 과감히 버려야 하며, 끊임없이 새로운 지식과 학문의 길을 열어야 큰 결실을 맺을 수가 있다는 네 가지 과일의 속성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약밤나무(수꽃)



약밤나무(암꽃)



약밤나무(열매군)



약밤나무(열매접사)

고려시대 이조년의 시조 「다정가」

"이화에 월백하고 은한이 삼경인제
일지춘심을 자유야 알라마는
다정도 병인양하여 잠못 들어 하노라."

하얗게 핀 배꽃에 달이 환히 비치고 은하수는 돌아서 자정을 알리는 때에
배꽃 한 가지에 어린 봄날의 정서를 자규(두견새)가 알고서 저리 우는 것일까마는
다정다감한 나는 그것이 병인 양, 잠을 이루지 못하노라.

글 사진 이명호 이명호의 야생화
<http://www.skyspace.pe.kr>



해외시장의 CLEMATIS 네덜란드 육종가를 만나다



육종가 Wim Snoeijer / Clematis Breeder(네덜란드)
가든인 편집실 제공



Planetarium 2015 박람회(네덜란드)에서 만난 Zoest B.V. 회사. 단일 품종으로 변환하여 약 9년간 400여종의 클레마티스의 신품종을 개발하며, 해마다 40여종의 신품종을 등록하는 회사이다. 1명의 육종가가 자연 육종재배 방식으로 품종 개발을 하여 안정적이며 색상도 무궁무진 하다. 농장의 규모는 크지 않은 긴 형태의 농원은 뒤로 끝없이 길어가며 클레마티스의 낙원을 걷는 기분이다. 하늘도 청명하고 이 거대한 농장에 일하는 종업원은 단지 5명. 사업이 바쁜 기간은 아르바이트 인부를 고용한다고 한다. 클레마티스는 명굴식물이지만 번식에서 시장 판매와 포장도 모두 가족 사업으로 진행하여 우리나라의 농장과 비교하면 경제적 수치 면에서 매우 안정적이고 높은 수익을 창출하고 있었다. 농장 입구에 커다란 탱크는 온실의 빗물을 받아 식물의 성장에 사용하고 있다. 주변의 이웃과는 수로로 나누어져 있지만 물의 이용에는 만반의 준비를 하여 자연의 혜택을 최대한 이용하는 꽃의 나라. 매니저가 끝없이 농장을 소개하려 했지만, 나는 중간에서 다음에 다시 방문 하기를 청했다. 내가 오늘 만난 클레마티스 로도 너무 많은 품종을 만났고, 좋은 곳은 남겨두고 싶은 마음에 다시 새로운 기분으로 방문하고 싶었다. 6치 포트로도 판매하지만 이 회사의 큰 수익은 절화하여 세계 꽃시장에 수출하는 것이다. 연간 수익 만개의 절화를 판매하며, 단가는 USD 0.20 ~ USD 0.30. 한국의 원예농가도 수익성이 높고 경제적 기반도 확실한 농가 소득원이 이어가기를 하는 바람이 크다. 천국과도 같았던 방문길 다시 꼭 방문하리라 기대하며, 신품종으로 영하 -25도 에도 견디는 신품종과 향내도 짙고 꽃도 풍성한 품종이 정원에 가득하기를 기대한다.



손 관 화 교수
천안연암대학 화훼디자인계열
(가드닝 전공+플로리스트리 전공) <http://sohn.yonam.ac.kr>

영국의 캐펠 매너 칼리지(Capel Manor College)

Enfield London, 6k



특수 농업대학에서 가든 디자인분교로의 변화

영국의 캐펠 매너 칼리지(Capel Manor College)는 런던 근교에 다섯 개의 캠퍼스가 있는 2년제 대학이다. 런던의 북쪽 양필드(Enfield)에 본교가 있는데 런던의 동, 서, 남, 북으로 그리고 런던 중심의 리젠트 파크(Regent park)에도 분교가 있다. 농업대학에서 시작한 대학으로 '동물 관리', '마구 제조', '원예와 조경', '가든디자인', '수목생산', '플로리스트리와 풍선 아트' 코스가 있는데 최근에는 원예나 축산보다 플로리스트리나 가든디자인이 인기있다고 한다. 리젠트 파크의 분교는 가든디자인과 원예와 조경 교육만 이루어지는데 방문해보니 분교라기보다는 제도실만 있는 상황이었다.



영국의 한 유명 가든디자이너가 "농업대학에서 출발한 대학의 가든디자인은 별로 좋지 않고 여전히 원예를 가르친다" 라고 하는데....." 다녀보질 않아서..... 캐플 매너 칼리지(양필드)를 방문할 때 지하철 턴파이크 레인(Turnpike lane)역에서 내려 버스를 타고 20분 정도 갔는데, 홈페이지에는 터키 스트리트(Turkey Street Station)역에서 내려 20분 정도 걸어가면 된다고 한다.

대학 정문 벽에 '캐플 매너 정원 환영'이라는 플래카드가 붙어 있었는데 대학의 정원을 보기 위해 외부인은 입장료 4.5파운드를 내야 했었다(요즘은 더 오른 것 같다). 그래서 학생이나 직원 모두 명찰을 착용하고 명찰이 있어야 대학 내부로 들어갈 수 있었다.



전문적 실습장과 정원디자인의 전시장

학교부지는 30에이커(약 38만평)인데 우리 학교의 18만평보다 두 배 정도나 넓었다. 학교는 정원을 중심으로 배치되어 있고 학생들의 실습을 위한 작은 정원들이 오밀조밀 모여 있고 전체 학교의 정원들과 원예과 학생들의 실습 포장, 온실 등이 넓고 다양하게 펼쳐져 있었다. 작은 정원들은 디자인도면을 붙여 정원을 설명하고 있고 이 작은 정원들에서 식물 수업을 하는 학생들과 정원관리 실습을 하는 학생들을 볼 수 있었다.

10월, 가을인 맛도 있고 정원을 만들 때 저렴한 재료를 이용했기 때문에 플라워쇼에서 보던 수준과는 달랐지만 대학에서 학생들 실습을 위해 이렇게 넓은 공간을 마련하고 있다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우리 대학도 실습장이 넓은 것으로는 한국에서 손꼽히는데 우리 대학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넓은 공간이었다.

정원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원예, 조경, 가든디자인 등 여러 코스의 학생들이 실습장에서 가을 화단을 정리하고 나무를 전정하고 전정한 나뭇가지들을 모아 버리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가든디자인 전문교육장과 교육비용이 학교를 다닐려면 영국과 EU의 학생들은 무료거나 저렴한데, 외국인들은 2015년 기준 10,308(약 2000만원)이다. 셰필드(Sheffield) 대학은 영국에서 건축, 조경에서 가장 좋은 대학으로 알려져 있는데 우리 대학 가드닝 전공 졸업생이 조경학과에 유학가 올 8월에 졸업했다. 영국은 대학이 3년제인데 공립대학인데도 3년간 총 2억 정도의 비용이 들었다고 한다. 다행히 영국에서 취업을 했지만 부유층 아니면 유학은 힘든 것 같다. 초등학교 때 영국 유학을 보내 대학을 입학한 어떤 한국 유학생의 어머니가 약 10억이 들었다고 했고, 어떤 한국의 가든디자이너는 아이들과 영국 유학하면서 한국의 집 한 채를 낳았다고 했다.

며칠 전에 한 회사원으로부터 가드너교육을 받기 위해 좋은 유럽의 대학을 소개해 달라는 메일을 받았다. 최근에 한국인들이 리틀 칼리지(Writtle College)로 많이 가는 것 같은데 등록금이 비싼 것 같다고 다른 곳을 소개해달라는 것이었다. 그런데 몇 년 전 영국에는 공립대학의 등록금이 올랐고 내국인과 달리 외국인 등록금이 비싸다.

캐플 매너 칼리지는 다른 영국의 칼리지



와 마찬가지로 3년제 대학과 연계를 맺고 있다.

몇 년 전엔 버벡 런던 대학(Birkbeck University of London)과 연계를 맺었고 정원과 관련된 실습은 캐플 매너 칼리지에서 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하지 않는 것 같다. 오늘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니 왕립농업대학(Royal Agricultural University)과 새로운 가든 디자인 코스를 만들었다는 내용이 소개되어 있다.





네덜란드 Plantarium 2015 8월의 꽃의 축제



신품종의 포상도 수여하며 세계의 육종가들에게 많은 관심과 식물의 연구개발을 독려하는 쇼이다. Plantarium 2015은 17,150 명의 방문객수는 작년과 거의 비슷하였으며, 유통업자의 방문이 10,905 명으로 나타났다. 외국에서의 해외 방문객은 약 40여개국에서 방문과 관심을 보였으며 계속 수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Plantarium이란? 유럽에서 가장 커다란 가든센터나 도매무역에 정원의 식물을 소개하는 무역박람회이다)

긍정적 활동범위

박람회 방문자의 반응은 매우 긍정적이었다. 부분적으로 새로운 레이아웃으로 인해 박람회의 행사가 개방적이었으며, 모두 GROEN-Direkt와 함께 연합하여 많은 관심을 더하였다. 박람회의 하이라이트는 최고 식물로 선정된 106개의 식물들이 소개 되었으며, 언론의 상도 휩쓸었다. 생활정원으로 주목 받은 Green City 항목에서는Technoplaza 및 Judith de Frankriker에 의해 팝업 전시도 시도됨.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양한 범위 다른 국가 네덜란드와 11개국에서는 참가자에 의해 제시 됐다. 박람회 참가자는 Plantarium 과Rabocaf에서도 늦은 밤까지 고객을 접촉하였으며 매우 긍정적으로 기여를 하였다.

GROEN-Direkt 판매 포인트 특징:

하나의 오퍼로도 약 600개의 가든센터로부터 정원식물의 전체 범위를 구입하도록 한다.

4000종의 품질과 가격을 알파벳순으로 일괄 처리 배열정리, 100% 샘플 품질의 최고 배달 서비스가 가능
몇 주간 동안은 긴급 배달도 가능하여 항상 신선한 상품배달. 서류 및 물류에 대한 낮은 비용으로 신속한 납품.

시상식.

최고 Novelty 신품종 / Hydrangea macrophylla 'Ruby Tuesday'(MAGICAL RUBY TUESDAY) , De Jong BV/회사

Novelty 금상 7품종



Hydrangea macrophylla Ruby Tuesday
(MAGICAL RUBY TUESDAY)



Ceanothus impressus Cool Blue



Coreopsis KA-POW Golden Yellow



Geranium pratense Midnightlyons (Midnight Ghost)



Hydrangea macrophylla Dancing Snow(Doppio Bianco)



Hydrangea paniculata PiliHPi(Baby Lace)



Nandina domestica Twilight



Photinia serratifolia Oploc5(Pink Crisp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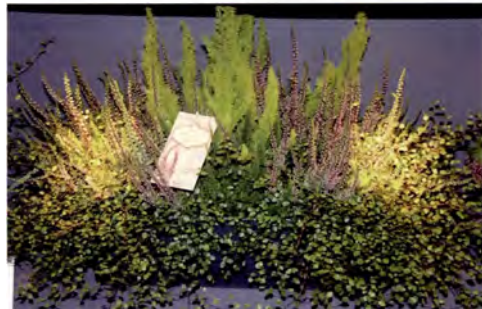
Plantarium 2015 로고



후케라Hukera Red Sea, 신종품의 디스플레이는 모델보다 더 귀하게 전시장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과수 나무도 열면으로 성장을 유도하면 적은 면적에서도 많은 수확을 올릴수 있다. 그리고 정원에서는 스크린 디자인으로도 이용한다.



우리꽃연구소의 로열티 상품이 네덜란드 Plantinum show에서 여러 회사의 식물 전시로 사용되고 시장에서는 판매 유통되고 있다. Gaura Red, Coreopsis Twinkle series 5색등은 장기개화 상품이며 힘이 좋고 다량의 꽃을 개화하며 인기 상승세를 타고 있다.



아래의 마차 자전거는 역사가 70여년되었으며 원래 울도는 우편배달부가 우편물을 배달하던 우편배달부 자전거이나 전시장에서 물건을 가까운 농장에 옮기는 운송수단으로서의 고풍품 자전거이다.



국제박람회에 전시되고 있는 '우리꽃' 해외 로얄티 식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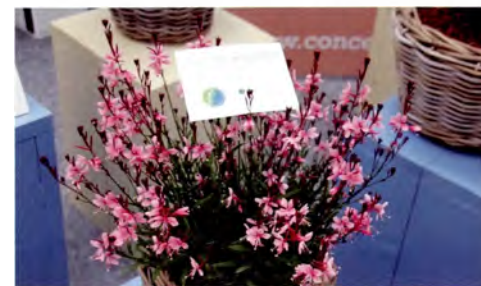
육종가 '박공영박사'



Plantipp B.V 사의 전시장에 8개 품종의 신상품이 전시되어 바이어들의 인기를 받고 있다.



가든센터에 판매되는 코레오리, 유럽 6개국으로 판매유통되고 있다.



Gaura Red



정원을 사랑한 옛 문인들의 기록을 따라 가보자!

- 강희안 '양화소록'과 유박 '화암수록'



글/사진 김 홍 렬

한양대학교 도시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건축/조경/생태복원기사, 공평길라잡이 종도

10월, 천고마비의 계절인 가을의 문턱이다. 푸른 잎으로 가득했던 산과 들에는 어느덧 울긋불긋 다양한 빛깔의 색으로 변해가고 있고, 선선하게 불어오는 가을 바람을 맞으며 정원에 앉아 한가로이 책 읽기에 적격인 날들의 연속이다. 얼마전 서점에 가보니 정원 서적이 많이 소개되고 있었다. 꽃에 대한 서적에서부터 귀농과 함께 정원을 소소하게 꾸러간 이야기를 담은 책까지 정원과 관련한 다양한 소재의 이야기들을 담은 서적들이 나와 있었다. 화초를 가꾸며 작은 정원을 경영하기란 직접 해보지 않고서는 얼마나 많은 정성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기가 힘들다. 그래서 정원에 대한 책은 매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또 초보 가드너에게는 지침서가 될 수 있다. 정원을 가꾸는데 있어서 좋은 지침서인 책도 필요 하지만 매일 매일 직접 정원에 나가 살펴야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과정이 노동으로 여겨질 수 있겠지만, 살아있는 생명체의 싱그러움을 느끼고 육체적인 건강과 마음을 치유하는 데에는 정원을 가꾸는 것만큼의 것도 찾기 힘들다.

독서의 계절인 가을, 가든인 구독자분들과 만나는 이번 10월호에서는 정원을 사랑하고 그 속에 흠뻑 빠져있던 문인들이 남겨 놓은 정원서적을 소개하고자 한다.

1. 강희안의 '양화소록'

강희안은 조선시대 초기 문신으로 인품이 담박하고 풍류를 즐겼으며 다양한 재주를 겸했던 인물이다. 시, 글씨, 그림에 재주가 빼어나 세종 때의 안견, 최견과 더불어 3절(三絶)이라 불렸다. 강희안 그림 중에서 '고사관수도(高士觀水圖)'가 가장 널리 알려져 있다. 그리고 그가 집필한 원예에 관한 책인 '양화소록(養花小錄)'이 전해진다. 이 책은 그의 동생 강희맹이 편집한 가문의 문집인 '진산세고(晉山世稿)'에 수록된 것이다. 일종의 원예서로 예부터 사람들이 완상해 온 꽃과 나무 수심 중을 들어 직접 심고, 옮김의 방법이며, 습도, 온도, 물주기, 가꾸고 북돋우고 거두어 드리기의 순서를 논하고 있다. 양화소록에 수록된 꽃과 나무는 노송, 만년송, 오반죽, 국화, 매화, 해란, 서향화, 연화, 석류화, 백엽, 치자화 등이 있다. 또, 사계화, 월계화, 산다화, 자미화, 일본 척촉화, 굴수, 석창포 등도 있다.



(그림 1) 강희안 '고사관수도'

양화소록 초반부 일부 내용을 소개한다.

아! 화초는 한낱 식물이니 지각도 없고 운동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배양하는 이치와 거두어 드리는 법을 모르면 안 된다.
건습과 한난을 알맞게 맞추지 못하고 그 천성을 어기면 반드시 시들어 죽을 것이니.....<중략>.....
하찮은 식물도 이리하거늘 하물며 만물의 영장인 사람이랴!
어찌 그 마음을 애타고 하고 그 몸을 괴롭혀 천성을 어기고 배칠 수 있겠는가?
내 이제야 양생하는 법을 알았다.
이로 미루어 이치를 넓혀 잔다면 무엇을 하든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내 이제 보고 들은 바에 따라 화초의 성품과 재배하는 법을 기록해서 <청천양화소록>이라 이름하였다.
이는 산중에 묻혀 소일하는 일거리를 삼음으로,
환편으로는 이를 즐기는 사람들과 취미를 함께 하고자 함이다.

양화소록을 읽어보면 조선시대 초기에 가꾸었던 화초를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대하는 마음과 태도를 바탕으로 마음 수양까지 했던 것이다. 요즘 나오는 수목도감 책은 단순히 식목에 대한 정보만 가득한 책들 대부분이다. 이 시대에도 이러한 책을 남겨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2. 유박 '화암수록'

조선시대 정조 때에 개혁을 단행했던 뛰어난 경륜을 가진 채제공(蔡濟恭, 1720~1799)이라는 학자가 있다. 옛 사람들의 인물화 중에서 두 눈이 바르게 정면으로 정렬되지 않고 서로 다른 곳을 바라보는 눈을 가진 인물을 보셨을 법도 한데 바로 그 인물이 채제공이다. 세종과 같은 성군에게 황희와 맹사성과 같은 정승이 있다면, 정종에게는 채제공이 임금을 잘 보필했던 정승으로 꼽힌다. 이 채제공이 남긴 '우화재기(寓花齋記)'라는 책에 유박(柳璞)이라는 인물에 대한 기록이 있다.

사문 유박은 꽃에 벽이 있다.
집은 배천의 금곡이다. 세상의 어지러움을 사절하고, 날마다 꽃 심는 것으로 조절하는 법도로 삼았다.
대개 기르지 않는 꽃이 없어 꽃피지 않는 때가 없다. 좁은 울타리 들레는 향기로운 중향국(衆香國)이다.
그는 기예 스스로 아름답게 여겨 그의 집을 우화재(寓花齋)라 이름짓고,
일터에 시에 능한 사람을 두루 찾아 그 일을 노래하게 하고, 내 글로 기문을 지어달라 하였다.

채제공의 글 뿐 아니라 당대 뛰어난 문장가들 중에서 꽃에 미쳐 꽃과 함께 삶을 살고 갔던 선비 유박이 등장하고 있다. 유박은 자신은 시대와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자이니 꽃을 친구로, 손님으로, 선생님으로 삼아 인생을 경영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책이 화암수록(花菴隨錄)이다. 그가 정원을 경영한지 20년이 되던 해에 저술했다고 한다. 이 책에는 화훼 전문서로서 45종의 꽃과 나무를 9등급으로 나누어 품평을 남기고 있다. 오랫동안 꽃을 키우고, 감상하면서 몸과 마음으로 체득한 그만의 관점을 엿볼 수 있는 책이기도 하다. 유박은 누구 집에 기이한 꽃이 있다는 말을 들으면 천금을 주고라도 반드시 구했고, 중국을 왕래하는 배편에 부탁해 기이한 꽃들까지 수집하기도 했다고 한다.

1등급: 높고 뛰어난 운치를 보여준다. - 매화, 국화, 연꽃, 대나무, 소나무
2등급: 부귀를 나타낸다. - 모란, 작약, 영산홍, 석류, 파초
3등급: 운치가 있다. - 치자, 동백, 사철나무, 종려, 편백
4등급: 운치가 있다. - 배나무, 소철, 천리향, 포도, 굴
5등급: 풍부하고 화려하다. - 석류, 복사꽃, 해당, 장미, 수양버들
6등급: 풍부하고 화려하다. - 진달래, 살구나무, 배롱나무, 감나무, 오동나무
7등급: 각각의 장점을 가지고 있다. - 배나무, 수수꽃다리, 목련, 영두나무, 단풍나무
8등급: 각각의 장점을 가지고 있다. - 무궁화, 패랭이꽃, 옥잠화, 봉선화, 두충
9등급: 각각의 장점을 가지고 있다. - 해바라기, 동자꽃, 한련화, 창포, 회양목



(그림 2) 유박의 '화암수록'에 담긴 화목구등품제 (사진촬영: 순천정원박물관 전시관)

조선시대 정원 서적의 근간은 인문적(人文的) 소양이다.

조선시대 원에 그리고 정원, 조경 서적과 관련된 것으로 대표적인 것이 이번호에서 살펴보았던 강희안 '양화소록', 유박 '화암수록'이다. 앞선 두 책을 비롯하여 홍만선 '산림경제', 서유구 '임원경제지'가 있다. 이 외에도 박홍생 '촬요신서', 신숙 '농가집성', 박세당 '책경', 신경준 '순원화첩잡설', 유희 '물명고' 등이 있다.

양화소록과 화암수록은 다른 책들에 비해 다른 점이 있다면 직접 정원을 경영하면서 꽃과 나무를 키워온 작가들의 관점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는 것이다. 수많은 종류들의 꽃과 나무를 의인화 한다면 성격과 같은 품격이 있는 대상으로 여겨서 시(詩)로 표현한다는 것은 이미 인문적 소양이 상당한 경지에 이르렀을 때 나오는 것이다. 필자가 말하고 싶은 것은 정원을 만들어 본다고 할 때 어떻게 하면 멋지고 화려하게 만드느냐, 어떻게 하는 것이 병충해 예방도 되면서 관리비를 적게 할 것이냐, 남들과 다르면서 나만의 정원을 만드는 것은 무엇인지에 너무 많은 시간을 소요하고 있는 것에 일침을 두고 싶다.

이보다 더 앞서야 하는 것이 정원은 문화적으로 향유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한 의지를 가지는 것, 그리고 그런 정원을 만들고 관리해 나가는 과정 자체가 문화 활동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정원을 만들고 싶은 분들은 이번 가을에 그리스·로마 신화나 고전, 시, 소설 등 장르를 가리지 말고 책을 많이 읽고, 문화 활동을 많이 즐겨보길 바란다. 그 문화 활동이 자연스레 정원 속으로 스며들게 하는 것은 이제 올해의 가을과 겨울을 지나고 다시 봄을 맞이할 때 새로운 정원 문화를 꽃피울 밑거름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2015년 천고마비의 계절은 정원에 문화의 활기를 불어 넣을 수 있는 감정과 정서를 풍부하게 하는 시간을 보내셨으면 한다.

정원을 꿈꾸는 사람들

감사의 마음으로 피어나는 정원

경기도 용인시 / 가드너 이정희(69)

글 사진 우정아



한국 정원의 터를 마련

경기도 용인시 이정희님의 정원은 400여 평의 정원에 한국적인 정서가 고스란히 스며져 있는 정원이다. 들어서면서 보여지는 소나무, 철쭉의 군락지를 지나 꽃의 모양을 형상화 한 판석 길이 가로질러 있는 넓은 잔디 정원을 가운데로 두고 가장자리를 돌아가며 테마를 잡아 소 정원들이 조성되어 있다.

2007년 터를 잡고, 2008년 입주하면서 조성한 정원에는 소나무, 노각나무, 목련, 모과나무, 감나무, 산수유, 능수매화, 꽃능수복숭아, 목수국, 향나무, 화살나무, 대추나무, 여러 종류의 조팝류 등의 목본류와 복수초, 갯깁이풀, 노루귀, 작약, 30여종의 원추리, 나리류, 비비추, 옥잠화, 20여종의 나리류, 으아리, 후록스, 여로, 20여종의 꽃창포 등과 연꽃, 수련, 물옥잠, 물토란 등 셀 수없이 다양한 종류의 식물들이 식재되어 있다.

건강한 정원을 위해 공부하며 준비하는 과정

젊은 시절부터 꽃이 좋아서 남향집에 정원을 가지고 사는 것이 소원이었던 주인공은 분재학원, 농업기술센터, 녹색전문가 과정, 생태문화학교, 조경기사 자격증 등 오랜 준비의 시간을 가지며 조금씩 꿈을 키워 나갔다. 아파트 생활을 하면서도 언제든 정원을 조성할 때를 위해 소사나무, 향나무, 연산홍, 작살나무, 화살나무, 조팝 등을 삼복하고, 명인, 곰취 등을 파종하여 기르고, 공사장에서 돌을 주워서 모으고, 우연히 마주치게 되는 아름다운 식물들을 작은 수첩에 기재해 그 식물에 대한 기초지식을 쌓으면서 정원을 머릿속으로 그려 나갔다고 한다.

땅에다 그림을 그린다는 생각으로 4계절 화려한 색으로 물드는 정원을 보기 위해 이른 봄 복수초를 시작으로 늦은 가을 용담까지, 겨울에는 남천의 열매와 산수국, 기린초의 꽃대를 그대로 두어 눈이 내려 앉으면 눈꽃까지가 아름다운 그림으로 완성되는 1년이라 한다. 초화류의 식재는 주로 야생화 위주로 군락을 만들고, 식생이 비슷한 종류로 2가지 이상을 혼식하여 계절마다 다른 꽃이 피게 하였다.



정원의 색채와 포인트를 놓치지 말자

배색에 대한 강한 고집이 있는 주인공의 의지로 색의 대비와 조화, 키의 높낮이를 리듬감 있게 표현하기 위해 설계에 주안점을 두고, 정원의 색 배치가 우세 종자에 의해 망가지는 것을 우려해 경계석을 기와로 해, 기능성과 함께 정원의 전체적인 주제인 한국적인 정원을 잘 표현해 주고 있다. 특히 흰색 꽃을 적절하게 사용하여 강한 색상 사이에서 완충적인 역할을 해주어 부드러운 색감이 되도록 배치한 것이 전문가와 견주어 모자람이 없다. 첨경물도 대부분 용기를 이용했는데, 큰 용기에 유리를 얹어서 만든 테이블과 용기를 뒤집어서 만든 의자가 인상적이다. 곳곳에 놓인 수공간도 전통적인 느낌의 것을 이용해 수생식물을 식재해 같은 이미지로 통일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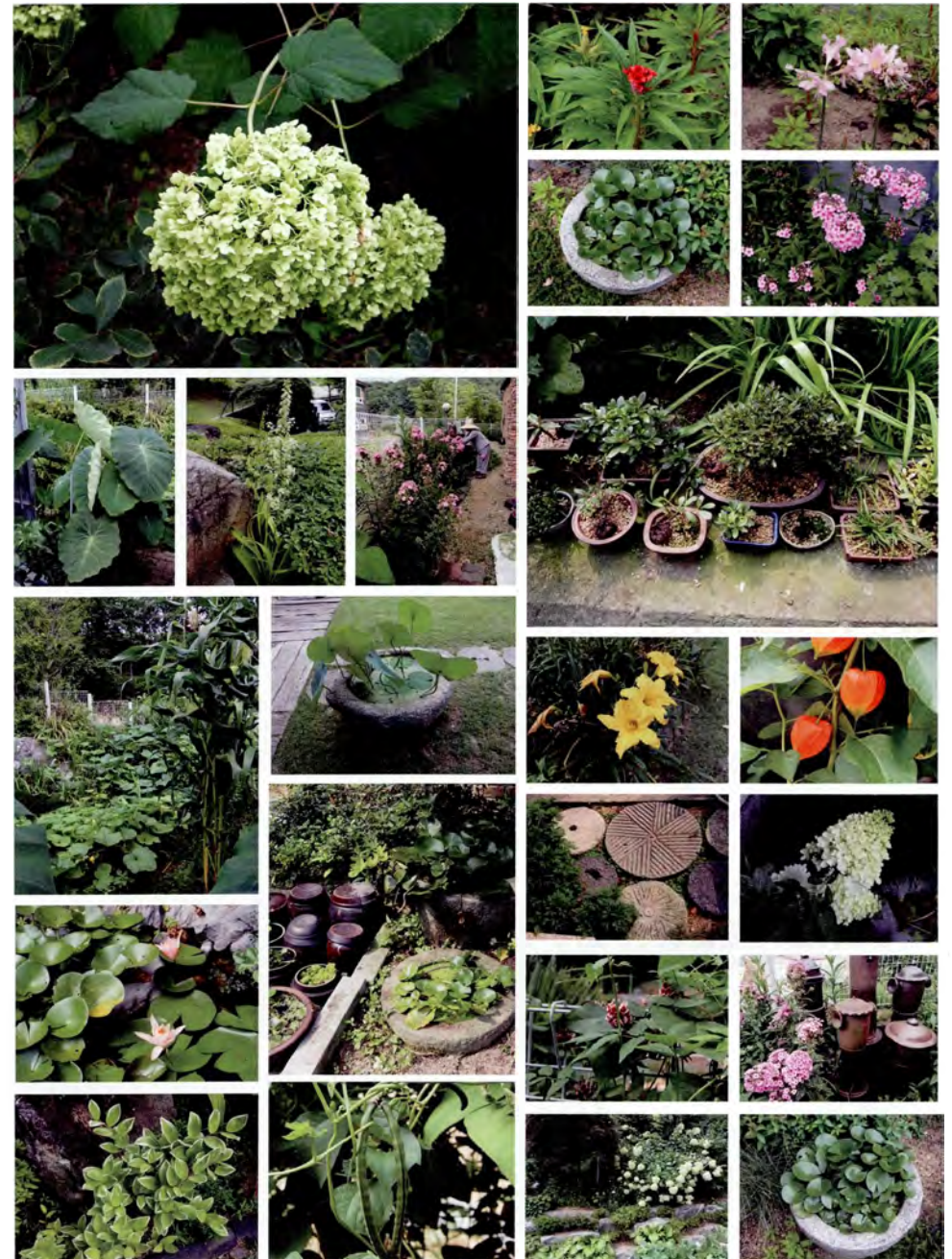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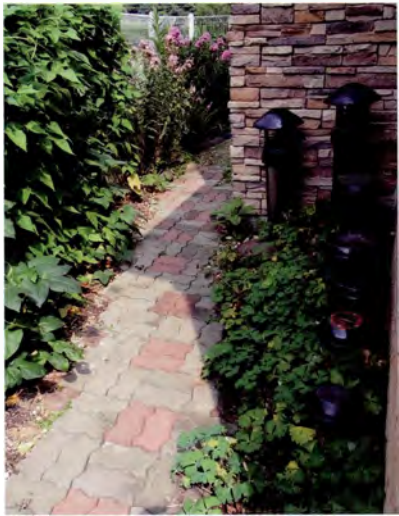
주인장이 제일 힘들었던 것은 길을 만든 과정이었다고 하는데, 처음에 땃돌 모양의 판석으로 전체적인 길을 냈으나, 겨울에 물이 고여 얼어 미끄러지는 일이 많아, 왕래가 많은 곳은 처음에 설치했던 것을 걷어 내고, 침목을 이용해서 길을 만들었다고 한다.

산과 이어진 언덕으로는 일반적인 식물이 고사하는 일이 많아서 당귀, 곰취, 명이, 도라지, 더덕 등 산야초 정원을 만들어 식생적인 문제점을 해결함과 동시에 미적인 부분과 건강한 먹거리 등 다른 이점도 얻었다. 집 옆의 텃밭은 정원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 두어 정원의 정경을 해치는 것을 막았고, 집 뒤편으로는 자갈을 깔고 덩굴성 식물을 울타리에 식재해 앞 정원과는 다른 재미를 준다.



정원의 관리도 일정한 계획표안에서

일반적인 관리는 새벽 6시에 시작해서 배가 고파야 정원일을 마무리 할 정도로 좋아하는 일이라 한다. 비료는 일반퇴비를 가을에 밑거름으로 주고, 봄에는 뒷산에서 부엽토를 채취해서 웃거름을 주고, 깻묵을 항아리에 발효시켜서 액비로 쓰고 있다고 한다. 화학적 방제는 피하고, 가을에 토란의 뿌리(무쟁이), 자리공의 뿌리를 납작하게 썰어서 소주를 부어 이듬해 봄에 물을 1000배 희석해 2번에 걸쳐 1주일의 시간을 두고, 분무해 주면 충해를 막을 수 있다고 한다. 특히 진딧물을 방제하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한다. 잔디 관리는 늦은 봄부터 여름까지 1주일에 한 번씩 깎아서 관리해 주면 다른 계절에는 특별한 관리가 필요 없다고 한다. 농업 고등학교에서 일반인들에게 교육하는 전지·전정을 배워 장마가 지나면 소나무 관리도 직접 한다.



작은 나라의 작은 정원 네덜란드

네덜란드를 구석구석 걸으며 일반 가정의 정원을 살펴보았다. 나라 전체가 운하로 둘러싸여 그 유용함이 전 세계 꽃 시장을 1위로 달리는 원예산업의 종주국에서 찾아나선 정원들.

정원의 다양함은 유럽에서 약간 뒤지지만 우리들의 정원에 유용하게 이용할 기본 요소들을 소개한다.



길가의 수직형 포플러 가로수의 위용도 볼거리



관리하기 편한 정원수로 색상과 관목의 모양을 잡아주어 이웃과의 차별화를 만든 정원



도로까지 넘치는 정원수의 모양을 다듬어 서로에게 해를 입히지 않고 나무를 자르지 않아도 건강하게 정원에서 아름다운 모습을 유지하는 정원수의 관리방법도 좋은 아이디어.

옆의 정원과 동일한 장소이며 나무 아래 심은 장식용 그라스는 펜스 역할도 함께 하면서 멋진 형태와 풍성함도 연출한다.



정원의 자연물을 이용한 펜스 - 그 위에 덩굴식물을 심어 지나가는 이웃에게 안전함을 주고 관리도 적은 식재 방법으로 매우 자연스러운 경관을 연출한 스크린 정원.

나뭇잎을 이용하여 펜스를 만들며 가을이면 잎이 초코렛 색 잎으로 변화하여 스크린으로 좋은 정원수이용도 고려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정원을 만들며 먼저 울타리를 먼저 흰색, 연두색, 등등으로 정원의 전체 경관을 해치는 경우가 많으나 조금 기다리더라도 자연적 환경을 만드는 것이 정원을 아름답게 변화하는 배경이 될 수 있다.



Garden in October - 67

COLOUR IN THE GARDEN



Hampton Court Flower Show

Harvest Colour

가을은 수확의 계절이다. 눈에서는 노랗게 익어 가는 벼가 출렁거리고, 밭에서는 빨갛게 고추가 익어가고 그리고 과수원에서는 사과랑 배가 주렁주렁 익어간다. 옛부터 어른들은 가을을 천고마비의 계절이라고 했다. 하늘은 높고 맑은 날이 찼다고 하는 가을. 파란 하늘을 배경으로 익어가는 노란 벼와 오렌지색의 감, 진한 갈색으로 익어 벌어지는 밤이 펼쳐는 색상의 조화는 풍성하고 경이롭기까지 하다. 모든 곡식이 익어가면서 만들어 내는 하베스트 컬러(Harvest Colour)의 아름다움을 가을 정원에서 찾아보자.

오도

풀무학교생태농업전공부 교사 / 일본 惠泉女學園園藝生活學科에서 화단설계 전공, 전 여미지식물원, 천리포수목원 근무

과일정원(Fruit Garden)에 담겨진 컬러들

다양한 과일 나무들을 심어 만들어진 정원을 과일정원(Fruit Garden)이라고 한다. 여러 가지 과일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사랑을 받으며, 우리들의 식욕을 돋구는 과일은 단연 사과일 것이다. 사과가 익어가는 과수원은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진다. 영국의 RHS Garden Wisley에서는 해마다 가을이 되면 사과를 가지고 약 5m * 5m의 공간에 전시를 한다. 노랑고 빨강고 녹색이고 갈색인 사과들을 모아 만들어낸 전시물은 그 어떤 화단보다도 아름답고 신선하다. 밝고 건강한 이미지를 만들어 내는 빨강색과 노랑색의 사과들 그리고 편안함과 따뜻함을 느끼게 해주는 녹색과 갈색의 사과들이 만나면서 최상의 조화를 연출하고 있다.



Apple design (Wisley Gard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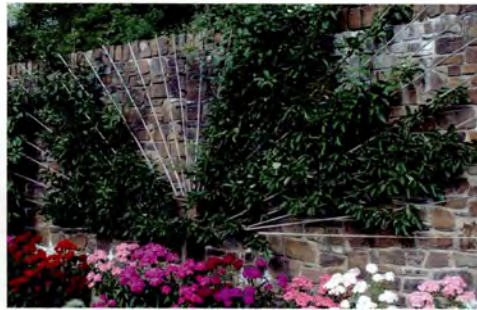


Fruit Display (Wisley Garden)





정원수로 심겨진 사과나무(Kellie Castle Garden)



벽면에 유인해서 키우고 있는 자두나무(RHS Rosemoor)



벽면에 유인해서 키우고 있는 체리(Rousham House)



화분에서 키우고 있는 포도나무(West Dean Garden)

채소정원(Vegetable Garden)에 담겨진 칼러들

채소와 꽃이 함께 어우러진 정원을 채소정원(Vegetable Garden)이라고 한다. 채소와 채소를 섞어짓기 하거나 채소와 꽃을 옆에 같이 심으면 서로가 잘 자라게 하는 신비로운 효과를 가지고 있어, 채소정원의 작물들은 더욱 잘 자란다. 우리나라에서는 농경문화가 시작된 오천년 전부터 이미 채소정원이 시작되었는데, 서양에서는 목축업이 더 활발했기 때문에 채소정원이 우리나라보다 집약적으로 발달되었음을 알 수 있다. 야생동물이 채소밭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돌로 담을 두르고, 그 안에서 꽃과 채소를 같이 키웠다. 채소정원에서는 여름이 끝나갈 무렵부터 익는 속도가 빨라지는 토마토를 시작으로 고추, 가지, 호박 등으로 풍성해진다. 따뜻한 가을 햇살을 머금고 탄생한 주황색의 호박과 빨강과 노란색 등 각양각색으로 익어가는 토마토, 신비로운 보라색 가지에 이르기까지 채소정원의 가을은 맛깔스러운 색들로 가득하다.



채소와 꽃이 같이 자라는 채소정원 (Harlow Carr)



채소와 채소가 같이 자라는 채소정원(West Dean Garden)



다양한 컬러의 토마토(West Dean Garden)



전 세계의 고추들이 한자리에(West Dean Garden)



따뜻한 가을 햇살이 만들어진 주황색 호박들 (Pumpkin Display, Wisley Garden)



Norway tracking 노르웨이 트레킹



글/사진 정수조경 정수진대표
서울시 강남구 율현동 146-10 tel. 02)2226-7515
www.jungsoowon.com

노르웨이는 요즘 한국 분들도 다녀오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다. 워낙 단체여행을 다녀 본지가 오래돼서 이곳은 가족과 배낭 여행으로 떠났다. 세계에서 물가 1위, 일인당 국민소득 2위등 끔찍한 여행경비 때문에 자동차를 빌릴 때도 보험을 생략했다. 5월달이라 눈도 녹기 시작하였고 봄 소식이 한국보다 조금 늦어 툰림이 만발하는 좋은 시기에 2013년 5월에 오슬로부터 일정이 시작 되었다.

오슬로에서 기역 남는 것은 두 개로 압축된다.

하나는 유명한 그림작가 몽크의 미술관에서 '절규'로 유명한 세제적 화가 에드바르 몽크(1863~1944)는 인간의 내면을 강렬한 방식으로 표현하여 본인의 초상화등 예상했던 것보다 그의 미술 세계는 초자연의 굴레를 다룬 철학이 뚜렷한 화가였다. 두 번째는 툰림을 각가지 색깔로 배합한 도시 전체를 툰림의 세계로 만든 것이 었다. 다음 번 들린 유명한 음악 작곡가의 도시 베르겐에서도 툰림의 다양한 색상 배합은 나의 기억 속에 사라지지 않고 도심의 아름다움을 간직 하계한 훌륭한 선물이 었다. 늘 느끼는 것이지만 예 우리나라는 도시의 꽃 배합색감이 좀 발전 하지 않나 아쉬움을 갖게 한다.

오슬로에서 베르겐은 비행기로 이동 하였다. 일주일을 노르웨이

에서 보내기로 하여도 나라가 워낙 커서 가족과 여행이라 트레킹 할만한 한 곳들이 많다고는 하지만 자동차로 남쪽에서 북으로 여행길을 잡았다. 봄이라 눈이 녹아서 길 좌우에 폭포의 연속이였다. 일년의 반을 겨울과 지내야 하는 북유럽 사람들이 만끽하는 풍경은 봄과 여름, 우리는 여행으로 와서 제일 좋은 풍경만 보고 가지만 북유럽 남자들은 일반적으로 기후 탓인지 말수가 적단다. 베르겐 어시장이 있다고 하여 기대를 가지고 둘러 보았는데 너무 규모가 적어서 실망이였다. 세계 어디를 다녀 보아도 노랑진 어시장만큼 규모가 크고 다양한 해산물을 파는 데는 없는 것 같다.

북쪽으로 이동하면서 자동차를 배에 싣고 유명한 피오르드 구경은 노르웨이에서 빼 놓을 수 없는 장관이다. 일정 구간은 자동차로 산 꼭대기에 올라가 협곡을 내려다보는 자연 경관이 더욱 아름다웠다. 가끔 작은 마을을 구성하여 평생 그곳에 갇혀 사는 분들의 세계는 어떤가 하는 궁금증도 갖게 한다. 숙소는 그런 분들



의 가정집을 빌려 쓰면서 애기도 해보는데 순수함 그 자체라고 밖에 말 할 수가 없다. 아무리 세계 제 2의 부국이지만 개개인의 삶은 한계가 있어 보인다. 이번 여행 중 자동차로 끝없이 산비탈을 계속 올라가 만나게 된 얼음 바다세계와 그 주변으로 펼쳐진 눈으로 덮인 아름다운 산들의 배경이 제일 아름답고 잊혀지지 않는다. 정원도 겨울 정원이 있다고 하지 않느냐? 겨울 자연 정원은 노르웨이를 따라 올 수 없다는 것을 확실히 증명해주는 대 자연 경관이였다. 다음 만약 노르웨이에 올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트레킹위주로 아름다움을 카메라에 담고 싶은 미련을 뒤로 두고 이번 여행기를 마친다.



정원으로의 여행 9



중세의 정원

정원스타일VII 힐링정원



글 사진 가든디자인 서수현
현 가든디자인스튜디오 대표
영국 에섹스 대학교 가든디자인 컨설팅 및 조경 석사
천안연안대, 건국대 정원관련 강의 및 정원멘토로 활동

삶의 여유가 생겨서 일까? '나'에 대한 생각이 예전과 달라져서 일까?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아끼면서 바쁘게 살아가는 도시 생활을 벗어나 자연을 느끼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귀농·귀촌을 하는 사람, 전원주택을 지어 삶의 터를 옮기는 사람들까지 어떻게 하면 건강한 환경에서 지금까지 도시에서의 생활을 정화시켜 자기 자신을 건강하게 만들 것인지 고민한다. 그러면서 요즘들어 가장 많이 쓰는 단어로 '힐링(Healing)'을 들 수 있다. '몸과 마음(영혼)의 치유와 회복'을 의미하는 영어로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도 쓰여 더 유명해 졌다. 그만큼 지금 시대에 자신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의미일 것이다.

유럽에서는 힐링이라는 단어를 정원에서 많이 쓴다. 정원을 만들고 가꾸고 꾸미는 활동이 사람의 마음을 치유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힐링정원'이라고 하면 치유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정원, 원예활동을 활발하게 할 수 있는 정원 등에 많이 쓰인다. 정식 명칭으로는 Therapeutic garden 테라퓨틱 정원이라고 하여 육체적 정신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사용하는 정원으로 가령 허브를 가득 심어 놓고 향기를 마심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아로마 테라피 요법(향기요법·식물의 향과 약효를 이용하여 몸과 마음의 균형을 회복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자연요법)을 체험할 수 있다고 하거나 요양원에 만들어진 간단한 미니 텃밭을 가지고 식물을 키우면서 체험할 수 있는 원예치료가 되는 정원을 보고 '힐링정원'이라고 말한다. 실제로 아로마 테라피의 경우 다양한 꽃, 뿌리, 잎, 나무껍질, 과일껍질 등을 증유하거나 냉각 압축하는 과정을 통해 추출한 식물성 오일을 가지고 다양한 질병 치료의 보조 치료요법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정원을 바라보는 것 뿐만 아니라 식물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잎을 만지거나 하면서 느낄 수 있는 식물의 향기로





이 정도 치료 효과를 볼 수 있다. 따라서 원예치료라는 말처럼 화 다. 우울증에는 베르가못, 레몬, 자스민, 스위트오렌지 등이 많이 쓰이고 식욕감퇴에는 라임, 제라늄, 레몬글라스, 피로에는 라벤더, 레몬, 두통에는 로만 카모마일, 만다린 등이 많이 쓰이고 있다.



조경가든대학 '이천그린아카데미 7기' 현장



3강 정원의 이해, 일죽, 마음의정원' 답사

과정 안내

주 최: 경기농림진흥재단 주관: 우리꽃연구소

교육기간: 2015년 8월 26~11월 25일(매주 수요일)총14강 / 하반기 마감!!

***2016년 상반기 과정 추후 공지!!**

교육시간: 오전 10시 30분 ~ 오후 3시 30분

장 소: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진상미로 924번길 87(송곡리 696) 우리꽃 교육장

수강료: 65만원(경기도 거주자에 한하여 경기농림진흥재단 40만원 지원, 자부담 25만원)

강좌혜택: 우리꽃 행사 및 무료특강에 우선기회 제공 및 수료증 제공

교육문의: 전화 031-712-7009

팩스 031-634-7991 / gardenjoa777@naver.com

교육후기: <http://gardenjoa777.blog.me>

강좌소개

우리꽃 이천 본사에서의 생생한 실습현장에서 당일 배운 이론을 적용해봅니다.

각 분야 전문 강사진의 실질적인 교육내용을 제공합니다.

매주 우리꽃 농원을 방문하는것만으로도 정원문화의 폭넓은 경험을 제공합니다.

우리꽃 교육의 중심강좌로 그린아카데미 동문회에서 다양한 정원문화 활동을 전개합니다.

강의순서	강의일정	강의내용	교수명
제 1강	08월 26일	식물환경	박공영
제 2강	09월 02일	채소정원조성	조남걸
제 3강	09월 09일	정원아해	서수현
제 4강	09월 16일	정원계획설계	서수현
제 5강	09월 23일	아생화종류	박공영
제 6강	09월 30일	식재관수	김광두
제 7강	10월 07일	정원답사	김영재
제 8강	10월 14일	병해충관리	이종범
제 9강	10월 21일	수목종류	김광두
제 10강	10월 28일	수목전정	박공영
제 11강	11월 04일	실외정원	김광두
제 12강	11월 11일	실내정원조성	왕금옥
제 13강	11월 18일	비배잔디	김광두
제 14강	11월 25일	식물번식	박공영



우리꽃연구소
URISEED LAB

문의전화 031-712-7009
팩스 031-634-7991
gardenjoa777@naver.com

가을에 파종해야 효과가 좋은

“추파용 종자”

대면적, 파투리땅 혹은 꽃축제에 제격인 추파용 종자!
다가오는 봄을 위한 발 빠른 선택!



가 격 표

모든 품목은 1KG/부과세별도 기준이며, KG당 100㎡~200㎡ 파종이 가능합니다.

◆ 잉글랜드양귀비 레드&핑크 (NOMAL) 80,000원 / (CLEAN) 120,000원	NOMAL과 CLEAN의 차이 CLEAN의 경우 종자가 정제되어 불순물이 적습니다.
◆ 캘리포니아양귀비 옐로우 (NOMAL) 60,000원 / (CLEAN) 80,000원	
◆ 캘리포니아양귀비 화이트&퍼플 (CLEAN) 120,000원	
◆ 수레국화 블루 / 25,000원 수레국화 레드&화이트&핑크 / 70,000원	
◆ 안개초 / 50,000원	
◆ 혼합종자 A&B&C / 80,000원	
◆ 혼합종자 D / 60,000원	

TIP

1. 추파용종자는 11월까지 파종해준다.
2. 파종 후 흙은 덮지 말고 뿌린씨를 살짝 눌러준다.
3. 비옥하고 물빠짐이 좋은 토양에서 효과적이다.
4. 이듬해 4월 중순경에 일정한 간격(30~40cm)으로 솟아주면 좋다.
5. 생육이 약해지면 복합비료를 뿌려준다.

*축제를 하기 위한 대면적의 경우 품종, 토양, 자연환경에 따라 생육차이가 크므로 우리꽃에 도움을 받으세요^^



우리꽃영농조합법인

T. 031-634-7990 F. 031-634-7991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진상리 924번길 87



세탁소 옷걸이를 이용한 토피어리



우정아
가든 코디네이터 / KHDA(한국원예디자인협회)
함원회장



>> 관리법

아침 저녁 분무기를 이용해 공중습도를 높여 주고 갈에 이끼가 완전히 마르지 않게 관리해 주어야 한다. 비료는 혼합생명에 원효성 비료를 넣어 주었기 때문에 원효성 비료의 유효기간 동안은 괜찮으나, 식물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에는 액체비료를 엽면사비 해 주어야 한다.

Material



한국의 야생화 바로알기

시대의 환경 변화와 그 학문적 성과를 반영한 최신 정보의 우리나라 나무탐사 대도감!

우리나라 전역의 산과 들에 자생하는 나무를 비롯, 원예품종까지 100과(科) 총 767종의 나무를 전국을 발로 뛰며 탐사한 국내에서 가장 최신 정보를 담은 나무탐사 대도감이다. 나무의 개화기와 결실기, 높이, 이름 유래와 이명, 유사종 등을 수록했으며, 나무 동정에 필요한 기본 수행사진을 비롯하여 꽃, 잎, 잎 뒷면, 열매, 씨앗, 나무껍질, 겨울눈 사진을 9장씩 배치 구성하였다. 이는 특정 부위만 파악해서는 쉽게 동정할 수 없는 나무의 특징들을 포괄적으로 보여줌으로써 누구나 쉽게 나무를 찾고 구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한 변종과 품종의 경우도 나무의 특성에 따라 추가로 담았다. 그 외 이 책의 특별한 점은 전국의 유명 노거수와 천연기념물 수종을 포함해 소개하였으며, 나무의 식별포인트와 동정에 필요한 최신의 정보를 원포인트로 수록함으로써 각각의 나무가 갖는 독자적인 특징을 파악할 수 있도록 돕는 장점이 있다.

기후 변화에 진화하는 한국의 나무를 찾아서...

- 우리나라 나무 100과(科) 767종의 7,000여 장의 사진 수록!

지구 온난화에 따른 한반도의 기후가 조금씩 변화함에 따라 국내 자생지 식생에도 많은 변화가 생겨나고 있다. 이 책은 이러한 기후 변화에 근거하여 현재 한반도를 중심으로 자생하는 우리나라 나무의 식생과 표본, 그리고 각 나무들의 최신 정보를 망라한 나무탐사 대도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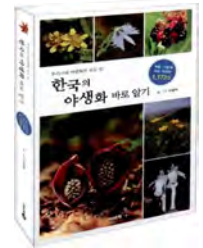
전체적으로 꽃을 피워 종자를 만들어내는 결씨식물과 속씨식물의 분류체계에 구분하고 그에 따른 과(科)별로 묶어 총 767종 나무를 상세히 현장 취재하여 소개하였다. 각 나무에 대한 소개는 전체 수행을 포함하여 꽃, 잎, 잎 뒷면, 열매, 씨앗, 수피, 겨울눈, 변종 및 품종 사진을 포함하여 9장씩 구성하였고, 나무의 특성에 따라 전국의 사찰, 마을 등에 분포하는 노거수와 천연기념물도 포함하여 소개하였다. 나무의 상세한 소개는 개화기와 결실기, 높이 또는 길이, 학명, 이명, 유래, 유사종(원예종 포함)을 결하여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외 나무의 형태에 대해서는 일러스트로 교목, 소교목, 관목, 소관목, 만목으로 표시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해당 식물의 식별 및 동정 포인트와 기존의 오류 등을 수정, 반영한 최신 정보는 '원포인트'로 구분하여 이해를 돕고 있으며, 초보자를 위해 꽃, 잎, 열매의 구조는 물론, 식물에 사용되는 한자어, 일본식 표기 등을 용어해설란에 구체적으로 풀어 명기 해놓았다. 이 책은 국내에 소개된 나무도감 중 가장 많은 수종과 더불어 사계절 나무의 생태를 깊이 있게 파악할 수 있는 사진배열 및 최신의 정보로 식물에 동경하고 공부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중요한 지침서가 될 것이다.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나라의 여름 · 가을 야생화!

여름과 가을에 피는 야생화 1172종을 담은 『한국의 야생화 바로알기』, 우리나라의 산과 들에 자생하는 야생화를 소개하는 이 책은 기존의 식물 관련 서적에 나타난 여러 오류를 수정하여 정리한 것이다. 학문이 발전하면서 새로이 밝혀진 내용을 반영하고, 그동안 발표된 논문들의 타당성 여부를 나름대로 확인하여 적시하였고, 그동안 제대로 다루지 않았던 변종이나 품종은 물론이고 변이까지도 총망라하여 엮었다.

식물의 분류를 개화기에 따라 봄꽃과 여름 · 가을꽃으로 나누어 정리하였다. 이 책은 여름과 가을의 꽃들을 정리한 것으로 붉은 색 꽃, 노란색 꽃, 흰색 꽃, 녹색 꽃으로 나누어 내용을 구성하였고 가급적 도감 순서대로 배열해 쉽게 볼 수 있도록 했다. 기본적으로 식물 1종당 4장의 사진으로 구성하였고 용어는 가급적 이해하기 쉬운 용어를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해 최대한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했다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기업'

종자 종묘 대표기업

물품을 판매하는 기업은 많지만, 같은 가격으로
물품, 기술, 노하우를 함께 판매하는 기업은
CZ입니다.

종자	꽃묘	프러그	구근	조경용 수목
일반초화 종자 다년생초화 종자 야생화 종자 채소 종자 등	일반초화 꽃묘 다년생초화 꽃묘 야생화 꽃묘 등	일반초화 프러그 다년생초화 프러그 야생화 프러그 삽수 프러그 등	춘식구근 추식구근 등	연산홍 자산홍 남천 등



농업회사법인 (주)씨제트

대표전화 031-444-1488

팩스 031-444-1477

주소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만안로 67 3층

홈페이지 www.czcorp.co.kr / 쇼핑몰 www.czmart.co.kr

10%
~20%
OFF 인하

정기구독 안내

[구입처]

오프라인 서점
교보문고

광화문점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
영등포점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종로 15 타임스퀘어 멀티플렉스 2층
강남점 :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465 교보타워 지하1, 2층
목동점 :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59-1 CBS지하 1층
잠실점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269 롯데 캐슬프라자 지하1층
인천점 : 인천광역시 남동구 예술로 138 이토타워 지하 1층
부천점 :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연동로 1 부천역사 7층
안양점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311 CGV 1번가 5, 6층
분당점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로 55 분당퍼스트타워 지하1층
천안점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만남로 43 신세계백화점 충청점 3층
대구점 : 대구광역시 중구 국제보상로 586 교보생명빌딩 지하1층
센텀시티점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남대로 35 신세계 센텀시티 5층
부산역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658 교보생명빌딩 지하 1층
창원점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04 마이우스 빌딩 지하1층

영풍문고 잠실점, 영광도서(부산), 남포문고(부산), 녹산문고(수원)

온라인 인터넷

교보문고 www.kyobobook.co.kr 알라딘 www.aladin.co.kr

[입금방법]

카드 결제 및 문의사항 : 031-712-7009

무통장입금

예금주 : 우리꽃영농조합법인

농협 355-0030-2359-03

▶ 입금 후 반드시 주소와 성명을 알려주셔야 배송가능합니다.

[정기구독방법]

1년 16.6% 할인 (100,000원)

2년 20% 할인 (192,000원)

Gardenin

발행인 : 우리꽃영농조합법인
김영재 경희대학교 명예 교수 / 농학박사
박광영 우리씨드(Uriseed)그룹 대표 이력박사
고문 : 이순영 前 함평 농업기술센터 소장
편집인 : 이명
주소 :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진상미로 924번길 87
전화 : 031-712-7009
팩스 : 031-634-7991
전문위원 : 김광두 농학박사 / 前상명대학교 겸임교수
김광춘 대림원예종묘(주)대표
김귀순 ㈜그린페이퍼 대표
박신애 건국대 생명환경과학대 교수
안완식 농학 박사 씨드림대표
우정아 가든 코디네이터 한국원예디자인협회 향원회장
유봉수 솔개그늘 대표
윤정식 원광디지털대학교 한방건강학과 겸임교수
윤평섭 농학박사 / 상육대학교 명예 교수
이정식 농학박사 / 前서울시립대 환경원예학과 교수
이종식 농학박사 / 서울여자대학교 명예 교수
최주건 농학박사

디자인&인쇄 : 워킹카우2 Workingcow42@naver.com
010 7399 5488



(주)한국원예자재

“미림가든센터” 의 새이름

조이가든센터

OPEN

2015년 10월 20일

“미림가든센터” 가
“조이가든센터” 로 변경,이전합니다.

총 500평 규모의 넓은 매장에서 쾌적한 환경과
다양한 상품으로 고객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조이가든센터

지하철 이용시(4호선)

신바위역 6번출구, 경마공원역 6번출구에서 약 700M (도보 10분)

버스 이용시(완경사업소 하차)

일반 11-3, 17, 917 / 간선 441, 541, 542 / 마을버스 3-1, 6, 7-2
완경사업소 정류장 하차, 정류장에서 약 600M (도보 8분)

경기도 과천시 상하벌1로 70
(지번 : 과천동 231-4)

Tel. (02)585-5346, 503-7080

Fax. (02)3473-8989

검색창에 '조이가든' 검색





우리정원에 가장 활용도가 많은 **코레우리**

해의 품종가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박광영박사와 우리꽃연구소 (UIR)의 이광범, 박영미 연구원들, 광복 70년을 맞이하는 2015년은 붉은 땀을 흘리는 무더위에도 URI의 독립품종을 연구하며 자부심과 긍지가 대한민국의 위상을 국제품종학회에 올리며 규모는 작아도 조작배양의 성공으로 전세계로 로열티를 국내로 받고있는 품종이다.



1. 삼수후 5cm로 성장한 모종



2. 모종을 작은 화분에 옮겨심기



3. 개화 직전의 모습



4. 개화 시작하여 화단에 식재 가능



5. 6치 포트



우리꽃영농조합법인

전화: 031.634.7990